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9호 【루계 제24957호】 주체104(2015)년 6월 28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로씨야 나호드까 포르마드출판사에서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10일 뽈스까 또룬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이 15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1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베네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네 《김정일장군만세》친목회, 주체사상연구 베네전국위원회, 베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꼬또누기자대학의 인사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베네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네전국위원회 위원장 해쓰 꼬호비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제반민주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시되여 진정한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토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으로,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베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인 꼬또누기자대학 학장 빠스깔 준체베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이끄시면서 모든것을 혁신적이며 진취적으로 창조해나가신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격찬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쓰 꼬호비가, 서기장으로 빠스깔 준체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맞으며 련환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기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3일에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기네무지개인민련합,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기네조선친선협회, 기네 꼬나크리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과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라고 하면서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은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경의를 드리였다.

그들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살루브가, 부위원장들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상임비서 란사나 꼬마라와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누 케이타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6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메히꼬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일 메히꼬인민사회당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메히꼬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가, 부위원장으로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후안 깜뽀스 베가가, 서기장으로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 위원장 안드레스 가스꾸쎈세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메히꼬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 연구조직 책임인사들을 망라하는 전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하며 경축집회, 강연회, 업적토론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 뻰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캄보쟈인민당창건 64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6월 27일 평양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높이

5월27일수산사업소 원양선단 첫 출항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을 주켜세우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정책입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원양선단이 출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물고기는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며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양어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지난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27일 수산사업소건설장을 몸소 찾으시고 사업소를 현대적인 원양수산기지로 꾸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함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해줄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하기 위해 먼바다로 나가는 5월27일수산사업소 원양선단의 첫 출항식이 27일에 진행되였다.

출항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5월27일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사업소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양선단들을 내보내여 물고기를 잡아오는것과 함께 물고기를 저장, 가공하는 사업소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어구, 자재들과 싱싱높은 고기배들을 보내주시고 배이름도 《황금해》라고 명명해주시였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업소가 선분적역할을 다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맹렬한 어로전을 벌려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물고기잡이전투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고 하면서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울리는 승리의 포성이며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뢰성이라고 하면서 몸은 비록 조국을 멀리 떠나있어도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매일 선창마다에 물고기를 가득 채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심장에 쪼아박고 날바다의 엄혹한 조건에서도 파감한 어로전을 벌려 련일 만선기를 휘날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조건에 맞게 과학적이고 주동적인 어장탐색을 진행하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앉아 집중적인 어로전으로 밀려드는 물고기떼들을 잘아내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어획고를 결정적으로 높여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선박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물고기잡이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급동능력을 더욱 높이고 물고기를 잡는족족 가공과 운반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돐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물고기대풍을 마련함으로써 이 땅우에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경쟁요강이 출항식에서 발표되였다.

출항식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이어 원양선단은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배고동소리 높이 먼바다로 떠났다.

【조선중앙통신】

강계정신의 위력 떨치며 자랑찬 위훈 창조

자강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사람들은 우리 당력사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단국을 앞장에서 헤치며 력원의 행군길을 열어놓은것처럼 앞으로도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전위대가 되여야 합니다.》

온 나라에 새로운 청양정신, 청양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자강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마련되고있다.

주체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계시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강계정신을 더욱 빛내이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도 펼쳐주시였다.

지난 2년간은 자강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뜻을 받들어 1년을 10년맞잡이로 주름잡으며 비약과 혁신, 기적을 일으킨 자랑찬 위훈창조의 날과 달이였다.

북방의 3월5일청년광산에 현대적인 물리브랜공장이 조업하여 생산의 정보화, 과학화가 실현되였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최첨단의 경지에 올라선 주체적인 유색야금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우리 식 CNC기술로 세계를 향해나가는 희천정밀기계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무인화의 경쟁열풍이 일고있다.

전력공업, 경공업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원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홍주청년1호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조직과 지휘의 정보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지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강계고려약가공공장과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이 무인화의 문을 열어제꼈고 강계토도술공장, 강계고려약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희천의 한 기계공장에서 연구개발한 현대적인 지열설비들이 인풍원과 장자강버섯공장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도중소발전소관리국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풍력발전기를 제작해내여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도에서는 지난해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누에고치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어 인민생활향상의 큰 밑천을 마련하였다. 강계돼지공장, 홍주닭공장, 강계오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이 정상화되여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강계시민들에게 매달 고기와 알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올해초 자강청가계공장이 일떠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시, 군들의 닭공장, 목장들, 협동농장들에서 축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되였다.

장자강버섯공장에서 버섯생산실적이 계속 오르고있고 강계토도술공장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맛좋은 음료가 생산되고있다.

강계시가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장자강기슭을 따라 아스팔트도로와 유보도가 새로 뻗어나갔고 장자강반에 장자강인민유원지,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인 궁궐같은 인풍원, 강계립체물동영화관, 배형식의 식당이 일떠섰고 강한부판에 대형분수대가 생겨났다. 장자강을 끼고 뻗어나간 홍주—공인철길연선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올해 봄에 강계시의 거리들과 장자강기슭에 살구나무, 들메나무, 은행나무, 노란 수양버드나무 등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어 강계시는 공원속의 도시로 더욱 아름다와졌다.

도도서관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사회적학습의 거점, 과학기술보급기지로 훌륭히 개건되였다.

지난 3월 도에서는 4일동안에 2만 6천여㎡의 랑림호취수구준철공사, 제방쌓기공사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해제끼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전력길도 웃으며 헤치고 천만산악도 떠올려 바다도 메우는 자강도사람들의 불굴의 의지, 결사관철의 투쟁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10월의 대축전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애육원, 도옥아원, 장자산소년단야영소, 자강도《애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도체육관, 도도서설계연구소,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10여개에 달하는 대상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도에서는 올해안으로 홍주청년3호발전소, 초산2호발전소, 자성군 귀인발전소, 중강군 중상발전소를 비롯한 5개의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완공하기 위해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발전설비보장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강계정신이 창조된 고장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한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룡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나무를 사철 심을수 있는 식물생장활성제 연구개발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합니다.》

사철 나무심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대학의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홍선화동무가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큰 나무도 옮겨심을수 있는 식물생장활성제를 연구완성하였다. 식물생장활성제는 올해 봄에 진행한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국토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름철에 도 큰 나무를 옮겨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생물화학연구소 소장이였던 장만철동무가 이미전에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만들어냈다. 그는 핵산구성물질인 루린유도체들을 국내산 원료로 합성하여 만든 식물생장활성제를 오랜 세월 산림과 원림부문에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장만철동무의 안해 홍선화동무는 사철 나무를 심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완성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남편을 대신하여 지난 3년간 식물생장활성제를 공업적으로 대량생산할수 있는 제법을 리론적으로 정립하고 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았다.

지금 세계적으로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뿌리활성제품들이 연구개발되여 리용되고있다.

대학에서 연구완성하여 합성제조한 식물생장활성제는 식물세포의 분렬을 촉진하며 식물뿌리에서 새 뿌리들이 급격히 나오게 유기물질합성을 활성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리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큰 나무를 얼마든지 옮겨심을수 있다.

지난 기간 많은 단위들에서 이 식물생장활성제를 써본데 의하면 여름철에 큰 나무를 옮겨심어도 사름률을 95%이상 보장할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식물생장활성제는 잔디의 사름률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식물생장활성제를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 부학장 박영호동무가 만들어낸 첨가제와 혼합하여 리용하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적은 량의 식물생장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다음 거기에 나무모들의 뿌리를 잠그겄다가 심으면된다. 큰 나무를 옮겨심는 경우 희석액으로 뿌리를 충분히 적셔주면 나무가 잘 살아나게 된다.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의 연구사들인 홍선화, 김순철, 오철윤, 윤철환동무들은 식물생장활성제를 산림복구전투장들에 더 많이 보내줄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력학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림학락 순천세멘트 공장에서 -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세멘트를 보내주기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해 힘찬 더 많은

KCNA Watch / The Rodong Sinmun Scanned Copy 2015-06-30 Page 1/6

전설적령장의 불굴의 신념 옥천과 더불어 빛나리

옥천혁명사적지는 북창군 중곡로동자구에 자리잡고있다.

병풍마냥 둘러서있는 산들에는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화사 설레이고 해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동강의 잔잔한 물결이 산촌의 정서를 한껏 돋구어준다.

하지만 옥천이 이름난것이 결코 한록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 경치에만 있는것이겠는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전설적령장의 강인담대한 기상이 빛발친것으로 하여 옥천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투쟁과 업적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력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입니다.》

인간의 신념은 준엄하고 어려운 때 그 진가를 나타낸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처음으로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았던 옥천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불굴의 신념과 의지, 배짱이 얼마나 굳세고 당대한것인가를 보여주는 력사의 땅이다.

주체62(1973)년 8월 어느날 덕천군(당시)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옥천기차굴을 지났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이곳에서 며칠 묵은 일이 있다고, 기차굴근처에 낚시터가 있을것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여년세월이 흘렀어도 잊지 못하시고 추억하신 옥천혁명사적지의 낚시터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옥천면 안학리에 위치한 옥천기차굴에 도착하신것은 주체39(1950)년 10월 16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부터 5일동안 옥천기차굴의 로반우에 있는 렬차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소로 정하시고 석수가 쉬일없이 떨어지는 굴을 하루에도 몇차례씩 드나드시면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성과적으로 지휘하시였으며 재진격을 위한 준비사업도 구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천에 도착하신 그 이튿날이였다.

작전실에서 한밤을 꼬박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아침 밖으로 나오시였다.

적들의 포성이 더 가까이에서 어지럽게 들려오고있다.

평양에서 옥천까지는 적기계화부대의 진출이 불과 몇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다보니 최고사령부 성원들은 물론 수행성원들도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이 걱정되여 당장 이곳을 뜨셔야 한다고 몇번이나 간청드리였다. 하지만 언제나와 같이 태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몇밤에도 여기 어디 낚시질할만 한데가 있겠는데 거기에 나가보자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란 진공도 하고 후퇴도 하는 법이라고, 후퇴라고 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진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전략적후퇴를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후퇴를 통하여 시간을 벌취하고 힘을 축적하여 다시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적들의 포소리를 짓누르며 울려퍼지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에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우려와 근심이 말끔히 가셔지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벌써 이겼구나 하는 생각만이 차고넘쳤다.

강기슭으로 내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위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여 주변의 경치를 부감하시였다.

하지만 그때 일군들이 어떻게 알수있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의 배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할 구상을 무르익히고계시는줄.

사면팔방에서 비행기와 땅크, 대포로 무장한 수많은 적들이 미친듯이 쓸어들고있는 그처럼 준엄한 시각에 태연자약하게 낚시터에 나오시여 원쑤들을 격멸할 작전을 구상하신 우리 수령님같으신 령장이 과연 있었던가.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한 한 일군은 그때를 못 잊어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낚시터에서 돌아오신 그길로 작전실로 가시여 작전도우에 적후 제2전선형성안을 그으시였다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이다. 신념을 떠난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국과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더욱 굳게 가다듬으신것은 혁명적신념과 의지였다.

미국놈들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 미국놈들을 용서치 않을것이다라는 멸적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기들이 수시로 들이닥치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사업하시였다. 지금도 옥천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렬차가 있던 옥천기차굴앞에서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굴입구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총탄자욱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듯 하여 순간에 가슴이 서늘해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을 떠나신 다음날 적비행기들이 날아와 쏘아댄 이 기총탄자리들이 오늘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화의 나날에 겪으시였던 수많은 위험천만한 순간순간들과 적들의 책동을 앞질러가며 분쇄해버리신 그이의 천출위인상을 전하고있다.

신념은 체득한 사상이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고히 믿는 굳건한 마음이다. 인간을 강의한 정신력의 체현자로, 불굴의 존재로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신념이다.

옥천혁명사적지의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 조잘대며 흐르는 시내물조차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에 대한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고있는듯싶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외식당으로 리용하는 집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골의 청신한 대기와 주변경치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이곳에 휴식터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여름과 겨울철에 군로자들이 휴식할수 있는 휴식터를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어려운 전쟁시기이고 일시적인 후퇴를 하고있던 때여서 모두가 전쟁의 운명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로자들이 경치좋은 곳에서 마음껏 휴식도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미국놈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렬치실 인민의 략원을 구상하고계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은 지금 놈들과의 어려운 판가리싸움을 하고있으며 귀중한 인민의 아들딸들이 피를려 싸우고있는 이 시각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긴장해야 하며 우선 식생활자체도 개선하고 어데까지나 검박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처럼 검박하게 생활하고 한알의 쌀과 기름도 아껴쓰며 철대로 랭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밥과 토장국을 구수하게 끓여놓으면 만족하다고 하시였다.

아무리 전쟁시기이라고 하여도 어찌 우리 수령님께 올리는 식사를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시고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제일 큰 소원이였다.

하건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도 마다하시고 수령과 인민이 고락을 같이할 때만이 혁명과 전쟁은 승리한다고 하시며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이렇듯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그처럼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지만 최고사령부 간부회의를 여시고 후퇴하여 들어오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후퇴의 전략적목적을 알려주는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군부대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울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였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투사들을 전선으로 파견하시였다. 최고사령관 명령들과 수많은 문건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옥천에서 하달하시고 비준해주시였다고 한다.

전쟁기간에도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을 중단없이 발간할데 대한 문제, 전시인민보건사업과 관련한 문제, 전선에서 싸우던 인민군군인들을 무사히 후퇴시킬데 대한 문제, 원쑤들의 폭격에 한 사람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반항공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후퇴하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돌봐줄데 대한 문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고 또 비록 옥천에 며칠밖에 계시지 않으시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부문의 사업과 군대와 인민의 생명건강에 대하여서까지 깊이 마음쓰시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력사의 그 나날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많이도 흘렀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 여전히 계속되고있으며 인간의 의지를 검증하는 시련과 난관도 계속되고있는 오늘 혁명적신념과 의지는 우리모두가 더 굳게 간직하고 살아야 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원동력이다.

하기에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가가 지녀야 할 신념에 대하여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맺혔할수 있습니다. …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높이 발휘된 혁명적신념과 의지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오늘에도 더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력사의 땅 옥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혁명적신념과 의지, 담력과 기상이 빛발친 이 불멸의 혁명사적지는 오늘도 천만군민에게 새겨주고있다.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가 되자고.

본사기자 백영미

승리의 봄을 부른 화선오락회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 전선원호에 떨쳐나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면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인민군전사들이 싸우고있는 고지를 찾으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 머나먼 전선길을 떠나시였다.

전선으로 기운차게 달리던 차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갑자기 멎어섰다.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린 비로 길옆에 있는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길을 통채 잠궈놓은것이였다.

호위성원들은 차길을 마련하기 위해 안타까이 뛰여다녔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발을 벗으시고 물에 들어서시였다.

4월이라고는 하지만 산골물이여서 얼음같이 찼고 아직 새벽어둠이 가시지 않아 물길이도 가늠할수 없었다.

호위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위험하다고 말씀올리며 그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 우리가 이 찬 개울물을 한번 건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고지의 전사들은 이 시각도 목숨걸고 미제와 싸우고있다고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탈레시였다.

드디여 가파로운 고개길과 험한 물길을 헤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차는 동해지구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전선에서 뵈옵는 전사들의 감격과 격정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랐다.

전사들이 올리는 열광적인 환호에 온 들이 달떠를 보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두가 이렇게 끝끝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전사들앞으로 다가가시여 그들의 손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미제를 쳐부실 신묘한 전법을 밝혀주시는 사이에 어느덧 식사시간이 되였다.

전사들과 함께 검소한 식사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병사들의 오락회에도 참석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는 전사들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였다.

이때 한 군인이 성큼 일어서더니 화선병사들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노래를 한번 불러주실것을 무람없이 요청드리였다.

모든 군인들이 폭풍같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위대한 수령님의 노래를 들고싶은 간절한 심정을 그대로 아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훤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동무들의 요구라면 한마디 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의 요청을 쾌히 받아들이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의 감동깊은 모습은 우리 수령님과 인민군전사들사이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를 보여준 숭고한 혼연일체의 화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승의 그날을 그리시며 부르신 봄의 노래는 적들의 총포성을 누르며 멀리 전선천리에 메아리쳐갔다.

강원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쿠웨이트국가 추장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쿠웨이트

쿠웨이트국가 추장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전하

나는 최근 귀국의 이슬람교사원에서 있은 폭탄테로행위로 무고한 주민들속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한 립장이며 우리는 귀국에서 발생한 이번 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친선적인 쿠웨이트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27일 평 양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

신천군 발산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별, 월별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위의 일군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깊이 마음쓰시며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금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알곡증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로농통신원 정연화

3일간이 전하는 영웅적방위자들의 위훈

지난 3월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시여 당중앙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동해판문의 전초기지인 신도방어중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변시키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월미도를 생각하였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니다. 이제 몇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이여! 번영하라!》

파연 무엇이 이 나라의 평범한 전사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못 잊어 추억하는 영웅적투쟁에로 떠밀었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백전백승할수 있은것은 바로 월미도의 영웅들처럼 인민군용사들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 원쑤들과 희생적으로 싸웠기때문입니다.》

세계전쟁력사 어느 갈피에서도 20대의 젊은 중대장과 평생 군복을 입고 산전수전을 겪어온 특군원수가 정면으로 맞서싸운 기록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후대들에게 신화와 같이 전해지는 영웅적인 투쟁이야기, 불굴의 투쟁사가 주체39(1950)년 9월 서해안의 자그마한 섬인 월미도에서 이 땅의 이름없던 병사들에 의하여 엮어졌다.

에로부터 아름다운 섬으로 불리워오던 월미도는 포연과 타번지는 불길로 뒤덮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죄다 타버렸다. 화점도 포진지도 흙속에 묻혔다. 들이란 들은 모두 부서졌고 바다물마저 끓어번졌다. 적들은 작은 섬을 온통 불사르고 파헤치고 또 뒤엎었다.

그러나 미제는 발악적인 폭격과 함포사격으로써도 월미도의 영웅적방위자들을 놀래울수 없었다.

월미도는 살아 싸우고있었다.

월미도를 지켜선 리대훈해안포중대장과 영웅적방위자들은 결사전을 앞두고 당회의와 민청회의를 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여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여주지 않을것을 한결같이 맹세하였다.

월미도의 방위자들은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단 4분의 포로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우리의 월미도방위자들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의 3일간에 적구축함 3척을 포함하여 각종 함선 13척을 격침격파하고 적의 상륙을 지연시킴으로써 인천—서울지역 방어부대들에 귀중한 시간을 보장하여주었으며 인천—서울지역의 전반적방어작전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들은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싸웠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곧 우리 민족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천대발전 망국노들에게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땅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인간의 참된 삶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소중한 어머니품이였고 조국을 지키는 싸움은 곧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영예로운 성전이였다. 방위자들이 지니였던 수령에 대한 충정에 기초한 숭고한 조국애, 이것이 바로 무비의 영웅성을 낳은 자양분이였다.

월미도방위자들이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세계앞에 자기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의 심장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음을 자신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증명하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른 어느해 11월 초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월미도방위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희생성을 발휘할수 있은것은 바로 그들의 가슴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은 곧 장군님의 품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며 월미도영웅전사들을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영생하는 월미도방위자들,

영웅전사들의 고귀한 정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살아있다.

조국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라는 억척의 신념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되여있기에.

본사기자 리금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김좌혁

북관땅은 계절이 일러서 한가위도 지난지 열흘인데 벌써 눈꽃이 흩날렸다. 두만강연안에도 아침부터 초린날씨에 맵짠 바람이 불어쳤다. 그리고 이날은 《만주사변기념일》을 하루앞둔 날이여서 일제놈들이 《국경경비진을 철통같이 강화》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1933년 9월 17일에 훈춘쪽에서 떠난 나루배 한척이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오고있었다.

배에는 얼두서너명의 손님들이 타고있었으며 거의다 겹옷을 입고도 스산한 얼굴들이였다. 그러나 그중에 젊은이만은 홑옷을 입고도 추운 날씨에는 아랑곳없이 강건너쪽만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이 세명의 젊은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원으로서 훈춘 성구에서 나와 함께 공작중이던 오일파, 박세홍, 한태연동무들이였다. 이들은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룡당파출소를 습격하러 가는 길이였다.

이들 세 동무외에 또 네 동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강 이쪽(훈춘쪽)기슭에 숨어있다가 만일의 경우에 세 동무를 엄호할 임무를 맡고있었다.

배는 잠시후에 두만강을 건너서 룡당나루에 이르렀다. 나루가에는 순사 두놈과 세관관리 한놈이 기타리고있다가 저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중명서를 따져보고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두만강을 건너다니는 인민들이 소금 한줌, 성냥 한갑도 마음대로 가지고다니지 못하게 하였으며 만일 이런것들이 발견되는 날에는 그것을 무작정 빼앗고 《밀금》까지 받아먹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조선사람들이 제 나라, 제땅을 찾아가는데도 어째서 오느냐고 쩍쩍거리며 따귀를 때리고 구두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기가 일쑤였다. 이날도 놈들의 이러한 일거일동을 눈앞에 보게 된 세 동무의 가슴은 격분으로 끓었다. 옷자락밑에 감춰가지고간 권총을 손에 쥐는 동무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배에 타고있는 인민들이 전부 내리고 자기들의 차례가 오길을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곳에 나타난 순사놈과 세관관리놈을 쓸어엎고 무기를 빼앗게 될 싸움에서 애매한 인민들까지 경불을 받을 념려가 있었기때문이다. 그들은 선객들의 뒤에 서서 천천히 걸어나가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았다.

벌짠 강바람은 계속 기슭을 휩쓸고 마침내 을산한 하늘에서 눈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니 배에서 내린 손님들은 순사놈들에게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모두들 바쁜걸음으로 가버리곤 하였다. 다른 손님들과 얼마쯤 거리를 두고 천천히 걸어가던 세 동무가 각기 순사들앞에 다가섰을 때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버린 뒤였다. 쩍임자인 오일파동무의 신호에 의하여 각기 순사 두놈과 세관놈을 봐놓히고 과출소에 뛰여들어가 무기를 로획한 다음 급히 배에 올랐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다. 그것은 배우에 있던 노가 없어졌기때문이다. 그래서 노를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부근에 있던 《국경수비대》와 경찰대들이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가까운 지점에서 적들의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강물을 헤여건늘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중 한태연동무는 전혀 헤염을 치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다른 동무들도 로획한 무기를 가지고는 두만강을 건늘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찰나에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무기를 배에 실은 다음 헤염을 잘치는 두 동무(오일파동무와 박세홍동무)는 물에 들어서서 배를 밀고 한태연동무만 배에서 적들을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강 절반쯤 왔을 때에 적들은 벌써 강가에 나타나서 총질을 하였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서 적들은 처음에 세 동무가 타고 건너가는 위치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를 못 가서 적들은 우리의 배를 발견했고 그놈들도 배를 타고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적들의 총탄은 점점 더 배주위로 집중되였다. 이때부터 세 동무는 배를 내버리고 강물에 들어섰다. 로획한 무기는 오일파동무가 메고 헤염을 칠줄 모르는 한태연동무는 박세홍동무가 업고 건느게 되였다.

적들은 세 동무가 물속으로 건느는것을 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배만 보고 그쪽을 향해 총을 쏘고있었다.

이 틈에 세 동무는 적들의 탄환에서 요행 벗어났고 그중 오일파동무는 무기를 메고 이미 강을 건너갈수 있었다.

강가에 대기하고있던 네 동무에게 로획한 무기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계속 적들을 방어하였다.

이때 한태연동무를 업은 박세홍동무가 강 이쪽(훈춘쪽)언덕에 거의 다달았을 때에 불행히도 적탄을 맞고 물속에 가라앉게 되였다.

그들을 따라 내려가며 적을 방어하던 오일파동무마저 적탄에 맞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처를 돌볼 사이없이 다시 총을 잡고 급히 일어나며 적들을 향해 불을 뿜었고 물속에 빠진 동지들을 구원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내려왔다.

잠시후에 물속에서 다시 머리를 추켜든 박세홍동무는 자기의 부상은 돌아볼 사이도 없이 등에 업었던 한태연동무부터 찾았다. 헤염을 치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의 머리가 두서너발 아래쪽에서 솟구쳤다가 또다시 물속에 파묻히는것이 보였다. 박세홍동무는 힘을 다하여 그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한태연동무를 업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가뿐숨을 내쉬며 다시 돌아서서 강언덕쪽을 향해 헤염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까스로 머리를 들고 앞을 건너다보았다. 이미 먼저 건너간 오일파동무와 그곳에서 대기하고있던 네명의 동지들이 로획한 무기를 손에 잡고 적들을 향해 맹렬한 불을 뿜고있는것이 보였다.

이 순간 박세홍동무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았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그는 한시라도 더 빨리 건너가고 싶었다.

그리하여 새로 로획한 무기, 지금 그가 가지고있는 단 한자루의 권총이 아니라 여러자루의 장총(보병총)을 잡고 그전보다 더 대담하게 적을 짓부시는 대렬에 다시 서고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 힘있게 팔다리를 내저었다.

이때 강가에서는 적들과 싸우는 동지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동무! 여기야 여기!…》

《어! 박동무!… 한동무!》

이러한 동지들의 안타까운 부름소리와 적아간의 격렬한 총소리가 한시에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는 급히 강물을 헤여나서 적들에게 한방의 총이라도 더 쏘고싶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몸에서는 출혈이 심하고 시시로 기운이 진해갔다. 게다가 어느 사이엔가 물살이 센 강심으로 차차 휩쓸려들고있었다. 안타깝게 팔을 젓고 다리를 걷어찼으나 헤염을 칠줄 모르는 한태연동무를 등에 업은 그의 몸은 점점 강물을 따라 떠내려갈뿐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위기로 끌려들어가고있었다.

《박동무!… 나를 놓아두게…그리고 동무는 어서…적이 오네.》

등에 업힌 한동무는 소리쳤다. 그러면서 두손으로 박동무의 등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적들의 총성은 더욱더 긴박해오고 물살은 더욱더 그들을 휩쓸어당기는 위험한 순간이였다.

이제는 숨이 차서 박동무는 입에 물고있는 권총마저 물속에 떨어뜨릴지경이였다.

그는 입에 문 권총을 가까스로 바른손에 옮겨쥐였다.

그리고 두세번 거듭 급한 숨을 쉬면서 그는 등에 업힌 한동무에게 말하였다.

《참게… 동무는 헤염을 못 치니까… 나를… 나를 놓치면 죽네!…… 꼭 붙들게! 살아야 해!》

그러나 이미 손발에는 맥이 빠지고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흐리여가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물이 들어찬 목구멍에서는 한마디 말도 더 나오지 못했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려가며 또다시 강바닥을 발끝으로 찼다.

그리고 그는 팔을 내젓고 몸을 뒤흔들며 다시 가라앉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무와 … 그리고 이 총을…》

그러나 손발은 각일각으로 굳어지고 적들은 급시 덮미를 치듯 배를 저어 건너오고있었다.

이때 강언덕에서 부상을 당한 오일파동무가 벼랑끝으로 계속 기여오며 그들을 향해 소리를 쳤다.

박동무는 숨가쁘게 웨치는 오일파동무의 목소리를 들었고 무엇인지 지기 어렛에 닿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오일파동무가 강언덕에 엎드려서 내미는 총탁이였다.

《박동무! 어서 이걸 붙잡게!…》

그러나 강력이 급한 곳이여서 두사람이 한데 매달릴수는 없었다. 박동무는 그 총탁을 등에 업힌 한동무에게 먼저 넘겨주었다. 그리고 물우에 몸을 솟구며 그의 몸을 떠올렸다.

이때 거듭 날아오는 적탄이 박동무의 등을 꿰뚫었다. 이것을 본 오일파동무가 다급한 소리를 지르며 그옆에 있는 다른 동지를 불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다른 네 동무는 강가에 다달은 배를 향해 맹렬한 불을 뿜고있었으므로 그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박동무는 겨우 손을 내밀어 권총을 던졌다. 그리고 《혁명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하는 마지막부탁을 남기고는 물속에 파묻혀버렸다.

오일파동무는 가까스로 한동무를 언덕에 끌어올려놓고는 계속 강굽이쪽을 기여내려가며 박동무를 불렀다. 그러나 적아간의 자지러지는 총소리뿐 그의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박동무의 모습도 다시는 물우에 떠오르지 않았다.

오일파동무는 사랑하는 전우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힘자라는데까지 강기슭을 기여내려갔다.

《박동무!…》

《박세홍동무!…》

그때로부터 나는 수많은 전우들을 일제와의 싸움에서 잃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슬픈 마음으로만 생각지 않는다.

바로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대로 우리 조국은 광복되였고 공화국북반부에는 이미 사회주의락원이 이루어지고있다. 우리의 선두에는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작물가꾸기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자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비배관리작전

벽성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벽성군의 일군들이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논벼생육전반기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그러면 군일군들이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내민 사업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치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올해 지속되는 가물은 논벼의 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다. 이런 자연기후조건으로 논벼의 초기생장이 위축되였기때문에 물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이겨내고 전반기와 후반기에 좋은 생육조건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이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대로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고 떨쳐나섰다. 그들은 집체적토론끝에 방도를 찾아내였다.

우선 비료주는 시기를 정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일군들은 현실조건을 타산하던 과정에 비료주는 시기를 바로 정하는 여기에 올해 알곡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지난해의 농사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때에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논벼비배관리를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가물이 지속되여 논에 물을 충분히 대지 못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논벼생장이 위축되였던것이였다.

일군들은 구체적인 실정을 타산하여 비료주는 시기를 과학적으로 정하는것이 논벼소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것을 파악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절비료를 주는 시기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지난해에는 물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절비료주는 시기를 이삭패기전 40~45일경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마른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가물이 계속되는것으로 하여 벼의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되였다.

일군들은 당정책의 요구대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서로의 집체적지혜를 합치였다. 그리하여 조절비료주는 시기를 지난해보다 10~15일 앞당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그렇게 할 때 논벼초기생육을 추세위전반기와 후반기의 생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던것이였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조절비료는 시기를 지난해와 달리 정하였다.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였다.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다.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적은 량의 비료를 가지고 비료의 손실을 막으면서도 그 효과성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였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 여러가지 비료주기방법이 논벼생육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마른 부식토 혹은 흙보산비료를 비료와 일정한 비률로 섞어 깊은층 비료주기를 하면 비료의 손실을 막으면서도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일군들은 즉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안의 농장들에서 조절비료주는 시기를 바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비료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즉시 3개의 지구로 나누어 모든 농장의 기사장들과 매 작업반기술원들을 대상으로 논벼비배관리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일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 농장들에서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비료주는 시기와 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농장들에 내려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또한 농장들에서 품이 많이 드는 비료주기에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들에서 비료주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병해충피해막이도 중시하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갔다. 현실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수 없다고 본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감자순으로 즙을 내여 거기에 디젤유 등을 섞어 류화시킨 후 약간의 화학농약을 섞어서 리용하여 효과를 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안은 적은 량의 농약을 가지고도 병해충피해를 줄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들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물이 있는 논이나 토양습도가 높은 포전들에 나비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하여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본받을만 하다.

전 명 일

길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정확한 판단과 결심채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비료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길주군 일군들이 비료가 적은 조건에 맞게 그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논과 손짐작으로 비료주기를 하는것과 같은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한 선진적인 비배관리방법으로 전환시키라는것은 우리 당의 요구이다. 그 요구대로 비료주는 시기를 다시 정한 사실을 놓고보자.

지난 시기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절비료를 6월말경에 주었다. 하지만 올해에 비료량이 적고 더우기 6월 상순과 중순사이에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모살이와 그루 생육에서 많은 지장을 받은 군의 실정은 비료주는 시기를 다시 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의 과학적인 분석판단과 옳은 결심채택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김홍준, 신용균동무들을 비롯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시기를 바로 정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군에 과견된 농업과학자들과 긴밀한 련계밑에 모든 농장들의 기상관측자료와 생육조사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논벼인 경우 모내기후 물부족으로 목표한 유효아지수를 보장 못한 포전들에서는 조절비료를 6월 20일경부터 앞당겨주고 정상인 포전들에서는 25~30일사이에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일군들이 실천단계에서 특별히 주의를 돌린 문제가 있다. 모든 농장들에서 비료주는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한것이다. 일군들은 농장기술일군들이 초급일군들과 함께 작업반별, 필지별로 생육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순차를 바로 정하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비료주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것도 경험적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강하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이미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모든 농장, 기관, 기업소, 가두인민반이 총동원되여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놓았다.

부족되는 비료를 보충할 준비를 원만히 갖추어놓은 일군들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군일군들이 또 한가지 중요하게 틀어쥐고 내민 문제가 있다.

군의 어느 한 지대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비석을 리용하여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석에는 규소, 카리와 함께 여러가지 원소들이 적지 않게 들어있다. 뿐만아니라 영양성분을 흡착하는 능력이 강한것으로 알려져있는 비석을 비료와 함께 쓰면 그 효과성을 높일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런 분석판단에 기초하여 지난 시기 비석을 리용하여 같은 량의 비료를 가지고도 몇배의 효과를 본 남양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전파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비석을 캐여 비료와 함께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농장들에서는 비석과 흙보산비료, 질소비료를 혼합하여 알비료로 만든 다음 깊은층물어주기를 진행하였다.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고 결심채택을 바로하여 비료효과성을 높이게 한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를 보여주는듯 군의 전야에서는 좋은 작황이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실리있는 풍력양수기를 생산리용

황주군 철도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있는 원료와 연료, 동력자원을 다 개발리용하면 어떤 경제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최근 황주군 철도협동농장에서 풍력을 리용하는 양수기를 만들어 리용하고있는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 풍력양수기는 아주 실리가 큰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작용원리를 보면 바람이 불면 날개가 돌아가면서 크랑크축이 회전하는데 이것이 련결대를 거쳐 피스톤을 움직이게 한다. 피스톤이 움직일 때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빨려 올라오게 되여있다.

그러면 이 풍력양수기의 좋은 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능률이 높다. 농장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바람이 부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4~6㎥의 물을 퍼올릴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하루에 6~7시간 돌릴 때 수십㎥의 물을 논에 댈수 있다. 전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이 정도의 물을 퍼올려 리용하는것은 매우 실리적이다. 농장에서는 이 풍력양수기를 리용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 적지 않은 면적의 논에 물을 대고있다.

풍력양수기의 좋은 점은 다음으로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위에서나 손쉽게 만들수 있다는것이다. 구조는 크게 날개, 크랑크축, 련결대, 뽐프 등으로 되여있다. 이것은 풍력발전기로 양수기를 돌릴 때보다 실리적이다. 풍력발전기는 발전기, 축전지 등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하므로 적지 않은 품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풍력양수기는 혼한 자재로 만들어 리용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체로 만들수 있다.

이렇게 실리가 큰 풍력양수기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만들어졌다.

이들은 여러가지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사색을 거듭하였다. 특히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 양수기를 돌릴수 있는 에너르기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결심밑에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바람이 자주 부는 농장실정에서 풍력을 농사일에 리용하면 얼마든지 전기를 쓰지 않고도 물을 퍼올릴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풍력을 리용한 경험있는 단위들에도 찾아가보고 군일군들의 방조도 받으면서 사색을 거듭하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실리가 큰 풍력양수기를 만들어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과시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본새가 얼마나 혁신적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용호

비료의 효과성을 높여

안주시 남칠협동농장에서

안주시 남칠협동농장에서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수 있는 훌륭한 당보를 마련하였다.

비결은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장의 실정에 맞게 비료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영농기술을 받아들인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이였다. 모내기가 끝난 포전을 돌아보는 농장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논벼포기들을 보니 계획하였던 날자까지 목표하였던 논벼아지수를 확보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원인은 새벽기온이 낮고 물온도가 오르지 않아 논벼의 초기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고있는데 있었다.

방도가 없는가.

이런 때 일군들의 결심이 중요하다. 주어진 조건에 포로되여 주저앉으면 열려진 길로도 나갈수 없다. 자기 농장의 농사를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설 때 어떤 어려운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일군들은 현장에서 곧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모두의 관심을 끈것은 비료의 효과성을 높여 논벼의 초기생육을 좋게 하는것이였다. 즉 비료를 벼포기들사이에 묻어주는것이였다. 이것은 비료성분을 땅속에 많이 뻗어있는 가는뿌리로 빨아들이는 농작물의 특성이로 볼 때 비료의 손실을 막으면서도 효과를 높이는데서 아주 좋은 방법이였다.

지난 시기 이 방법으로 비료를 준 경험도 있으므로 모두가 신심을 가졌다.

농장에서는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작업반, 분조들에서 비료주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하였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받아들인데 맞게 모든 농장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각별한 힘을 넣어 비료주기방법이 온이 나게 하였다.

기술일군들이 농장원대중속에 들어가 비료를 주는데서 나서는 과학적인 문제들을 해설해주어 그들이 원리를 알고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특히 농장원들이 비료를 묻어주는 깊이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데 각별한 힘을 넣었다.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 농사를 잘 지어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내일 열의밑에 말은 일을 알심있게 하였다. 결과 논벼아지수를 늘이는데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효과적인 비료주기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농장의 올해농사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논벼비배관리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정영철 찍음

김매기성과 계속 확대

함주군 추상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김매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김매기의 속도와 질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들은 날자별김매기계획을 바로세우고 로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손김매기, 살초제에 의한 김잡이, 후치질을 잘해나가고있다.

김매기에서는 제2, 3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들은 알뜰하고 깐진 일솜씨로 풀이 돋아날세라 질적으로 김을 매면서 책임성을 높여나가고있다.

다른 작업반의 농장원들도 알곡증수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가 김매기를 잘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당한 포전들을 풀밭처럼 알틀히 가꾸고있다.

농장에서는 김매기를 잘하는 작업반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농장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7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7월 상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오호쯔크해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부내륙지방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 자주 약간의 비가 내리겠다. 상순의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적겠으며 평균기온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높겠다. 그리고 서해안지방에서 고온현상, 동해안지방에서는 저온현상이 나타날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조절비료를 제때에 질적으로 주고 논물관리를 잘하며 김잡이대책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조절비료를 이삭패기 40~45일전에 기상조건, 모종류, 모면 시기, 심은 밀도, 생육상태를 고려하면서 주어야 한다. 해당 단위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비료주기방법을 받아들이고 대용비료를 생산하여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논벼생육상태를 고려하여 논물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모내기를 일찍 하여 목표아지수의 80~90%를 확보한 포전들에서는 중간물말리기를 하며 모내기를 늦게 하였거나 논벼의 생육이 약한 포전들에서는 얕은물대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뿌리썩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포전들에서는 논벼생육이 왕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간물말리기를 진행하며 티오균비료나 다원소광물질비료를 주어 뿌리활성을 높여야 한다. 소금기피해를 받는 간석지논에서는 논물을 3~5일간격으로 갈아주어야 한다.

무더기비에 의한 침수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물빼기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동해안지방에서 랭한현상을 예견하여 이런 이삭형성시기에 깊은물대기를 할수 있도록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뒤구루논에서 제해하는 논과 소금기피해를 받는 간석지논에서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모내기후 물을 대지 못하여 생육이 정지되였던 포전들에는 빨리 아지비료 겸 조절비료를 주어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논김매기를 철저히 진행하며 살초제를 기준대로 처리하여 김을 말끔히 잡아야 한다.

올해 물을 대지 못하고 모를 낸 포전들이 많은 조건에서 논김잡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손김매기를 3회이상 진행하며 살초제를 리용하여 김을 제때에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농약사용량을 줄이면서 김잡이효과를 높일수 있는 농약적심제를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벼대벌레를 비롯한 병해충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약치기를 잘하여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이삭비료주기와 김매기, 후치질을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삭비료주는 시기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비료가 적은 조건에서 비료주기를 질적으로 진행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두엄이나 흙보산비료에 화학비료를 섞어주면 포기마다 고르롭게 줄수 있고 효과도 높일수 있다.

김매기와 후치질을 잘하며 장마철누기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6월 중순에 내린 비로 강냉이밭에 김이 많이 나오고있으므로 김매기를 잘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치질은 북을 높이 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누기피해를 받을수 있는 강냉이밭에 물받이도랑을 내고 밭가운데 물빼기도랑을 치며 땅속도랑에 의한 물빼기를 하여야 한다.

남새앞그루로 심은 강냉이밭에서 개고리뿌기와 꽃가루묻혀주기를 잘하여 이삭당 알수를 늘여야 한다. 그리고 뒤그루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다그쳐 끝내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평지대에서 수확시기를 바로 정하고 감자수확을 적기에 끝내며 고지대에서 비배관리와 병해충구제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평지대에서는 수확적기판정을 잘하고 수확을 적기에 와닥닥 끝내며 감자의 보관을 잘하여야 한다.

고지대에서는 김매기와 북주기를 제때에 하고 잎덧비료주기와 병해충구제를 잘하여야 한다.

콩농사에서는 원그루콩비배관리를 잘하고 뒤그루콩을 제때에 빨리 심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원그루콩밭에서 김매기와 후치질을 잘하여야 한다.

1차김매기후 15일정도 지나 2차김매기를 진행하며 이때부터 흩일까지 완전히 묻히도록 북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김매기를 하여야 한다. 콩포기가 무성해져 고랑을 메우기 전에 후치질을 끝내야 한다.

앞그루작물을 수확하는 차제로 뒤그루콩심기를 빨리 하여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뒤그루콩옮겨심기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에보지휘부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능률높은 송풍식동력분무기를 제작리용

송림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올해 송림시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각종 농약과 영양액을 포전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농작물에 뿌려줄수 있는 새형의 송풍식동력분무기를 수십대나 제작하여 리용하고있다. 이 농기계가 바로 지난 5월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진행된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분무기이다.

송풍식동력분무기는 현재 시안의 모든 농장 작업반들에 도입되여 당면한 농작물비배관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이 분무기는 본체와 원동기, 물통, 배출과 송풍 및 영양액분무장치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총무게가 50kg정도이다. 원동기의 가동과 함께 배풍기날개가 회전하면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여러가지 농약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등을 안개모양으로 분무하게 되여있다. 본체와 련결된 송풍관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면서 임의의 방향에 분무할수 있다. 이 분무기로는 바람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70~100m,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m정도의 반경안에 있는 농작물들에 분무해줄수 있다.

지금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는 이 분무기의 제작과 도입기술을 배우려고 전국의 농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누구나 욕심을 내는 이 분무기는 좋은 점이 많다.

우선 적은 로력으로도 작업능률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이 분무기로는 한시간에 3정보의 논밭에 분무할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

서송협동농장의 어느 한 작업반에서는 지난해에 논벼농사 전기간 이 분무기를 가지고 생육단계별에 따르는 잎덧비료주기를 4~5회정도 진행하였다.

결과 물이 부족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논벼의 이삭수와 이삭당 알수, 천알무게가 늘어났다. 뿐만아니라 강냉이와 밀, 보리, 콩, 남새농사에도 리용하였는데 수확고가 올라갔다.

올해에 시안의 농장들에서는 밀, 보리농사에 리용하여 천알무게를 지난해보다 10% 더 늘임으로써 많은 량의 알곡을 증수하였다. 그것은 농약과 영양액의 분무립자가 안개식으로 뿌려지므로 농작물의 흡수력이 높아졌기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종전보다 많은 농약과 영양액을 절약하였다.

이 분무기는 제작원가가 적고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수 있다.

요란한 말명은 아니지만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고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였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송풍식동력분무기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애국적열의속에 마련된 창조물이다.

처음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리명순동무가 올해농사작전을 하면서 왕가물이 예견되는 조건에 맞게 모든 농장 작업반들에 이 분무기를 도입할것을 발기하였을 때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분무기는 그가 서송협동농장의 작업반장 김철만동무와 수리분조장 김성규동무에게 파업을 주어 창안제작되였는데 시험적으로 리용해본 결과 농작물의 비배관리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었다. 하지만 이런 분무기를 매 작업반들에 도입하자면 적어도 수십대는 있어야 했다.

경영위원회책임일군들은 대중의 힘을 믿고 당의 뜻대로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켜나간다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갔다.

이에 따라 농기계분야에 조예가 깊은 경영위원회 부원 허경민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가 무어지게 되였다. 그리고 여기에 매 농장의 수리분조장들을 비롯하여 공부한 실천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이 망라되였다.

그후 시농기계작업소에서는 이 분무기제작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전투가 밤낮이 따로 없이 벌어졌다. 이 나날에 기술혁신조성원들에게 힘이 된것은 밤낮도록 자기들과 함께 걸린 문제도 토론하고 여러곳을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쓴 책임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였다. 이것이 그대로 말없는 정치사업이 되고 밑거름이 되여 이 분무기는 지금처럼 성과적으로 개조완성되게 되였다.

송풍식동력분무기제작과정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일군들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일본새와 왕강한 투쟁기풍이야말로 모든 성과의 중요한 비결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박 영 진

당의 교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발휘된 훌륭한 모범

태천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태천군이 도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앞장에 선 지역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군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군안에 교육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고 한강하게 내밀어 몇해사이에 당의 교육강국건설구상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태천군일군들의 사업에는 전국의 시, 군 책임일군들이 본받아야 할 경험적인 문제들이 있다.

군사업의 첫 《의정》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높고 안전한 집을 지을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런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교육사업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와 풍부한 경험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태천군일군들의 사업을 투시해보면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의 첫걸음, 교육강국건설의 기초는 바로 교육사업에 대한 우리 일군들의 옳바른 태도와 관점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다.》

태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일동무가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군안의 교육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라는것을 뼈저리게 인식한 계기가 있었다.

몇해전 그가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임명된 첫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의 문건이 책임비서의 책상우에 놓여있었다. 그 문건을 펼쳐보는 김승일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상급당조직에서 군안의 교육사업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내려보낸 문건에는 반드시 퇴치하여야 할 결함적인 내용들이 지적되여있었던것이다. 그는 즉시 그 문건을 놓고 군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것을 대하는 일부 일군들의 태도였다. 자책의 빛을 찾아볼수 없는 그들의 얼굴에는 군의 기본임무는 농사를 잘 짓는것인데 언제 교육사업에까지 관심을 돌리겠는가 하는 표정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그날 책임비서가 받은 충격은 컸다. 군안의 교육사업이 잘되지 않는 원인이 바로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이런 그릇된 관점에 있었던것이다. 농사일이 잘 안되는것은 가슴아파하고 해결책을 찾아 뛰여다니면서도 교육사업은 강건너 불보듯 하는 태도와 관점은 결국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고 조국의 장래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근시안적이며 비량심적인 행위라고 책임비서는 생각하였다. 군의 교육사업은 곧 우리 고장 아이들, 우리들의 자식들을 위한 일이며 나아가서 군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대사가 아니겠는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의 눈앞에는 나라의 중대사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후대들을 위한 일을 최대의 중대사로 여기시며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계속 어려왔다.

《물론 농사일도 중요합니다. 현재 군에서 벌려놓은 일들도, 당장 품을 들여 해결해야 할 큰 일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무들, 온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다 맡아안으신 우리 원수님께서 후대들을 위한 일을 어떻게 대하고계시는지 다시한번 깊이 돌이켜봅시다. 우리 원수님처럼 교육사업을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해결해야 할 최대의 중대사로 대함시다. 이런 애국의 량심이 없다면 농사본제도 인민생활문제도 제대로 풀수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비서가 다음날 군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절절히 터친 심중의 토로였다. 태천군에서 교육을 중시하는 기풍이 서가기 시작한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여기에서 군당책임비서가 우선적으로 를 여러고 일관하게 내민 문제가 있다. 군안의 일군들부터가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태도와 관점을 가지도록 한것이다.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교육사업과 관련한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우선시하며 절대시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책임비서는 군당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회의들에 교육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토의하도록 하였다. 회의에서 토론되는 내용들이 빈말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의 교육사업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 군당과 군인민위원회의 해당 일군들에게 파업을 주어 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안들을 회의때마다 제출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것을 잊지 않았다.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들이 사소한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총화사업을 엄격히 진행한것 역시 군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옳바로 가지도록 하는데서 좋은 과정으로 되였다.

점차 군일군들의 사업수첩에 교육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더 많이 적혀지기 시작하였고 군안의 학교들에 일군들의 발자욱이 자주 찍히기 시작하였다.

군에서는 차츰 확립되기 시작하는 교육중시기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작전에로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군안의 교원들을 적극 우대하고 내세워주는 사업을 활발히 벌린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여러모로 의의가 컸다.

군안에 교육사업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는 측면에서도 좋았으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원들을 분발시키는데서도 큰 추동력이 되였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매달에 한번씩 군안의 교원들의 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모범적인 교원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을 관례화하였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농사일이 바빠도 이 사업만은 놓치지 않고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품을 들인것만큼 소득은 컸다. 군안의 교원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애착을 가지게 되였으며 특히 부부교원들의 열의가 어느때없이 앙양되였다.

군에서 해마다 12월의 마감에 품들여 조직하는 한해 교육사업총화를 위한 회의는 군안의 교육자들에게 큰 여운을 안겨주었다. 많은 정책적과제들을 안고있는 군에서 교육사업을 특별히 중시하며 해마다 어김없이 총화짓고 넘어가는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 교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였으며 군안에 교육중시기풍도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교원들이 명절과 기념일들을 보다 뜻깊고 즐겁게 보내도록 그 준비를 군당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맡아해주고있는 사실, 군당위원회의 모범을 본받아 리당위원회들에서도 교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리고있는 사실 등 태천군에서 교원들을 우대하고 내세워주고있는 좋은 실례들은 많다.

이렇게 일군들부터가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적극 떠밀어주고 있으니 왜 군교육사업이 잘되지 않겠는가.

교육사업은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는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태천군의 책임일군들은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여기에서 잘한것은 제기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한것이다.

특히 해마다 진행하는 학교지원월간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당에서는 해마다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월간으로 정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원열풍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전시회가 열린다. 태천군의 책임일군들은 이 사업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전시회가 단순히 교육지원을 위한 전시회가 아니라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점열받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고있다.

군안의 일군들이 지금도 추억하는 일이 있다. 언제인가 열리였던 교육지원전시회때의 일이다. 군안의 어느 한 장소에 전시된 지원물자들을 돌아보는 책임비서의 얼굴빛은 어두웠다.

물론 어느 단위나 사정이 어려운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일에 심장을 내대지 않고 강건너 불보듯 하는 옳지 못한 태도가 력력히 어려오는 일부 단위들의 전시대앞에서 그는 오래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때 책임비서동지가 철절히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동무도 해방후 연필문제를 첫 의정으로 토의하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자란 이 나라의 공민이 아닌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으면서도 우리 당이 후대들을 위한 일에 억만금을 아끼지 않은 감동깊은 사실들을 동무자신이 자식들을 키우며 눈물속에 체험하지 않았는가. 우리 원수님께서 이 땅우에 교육강국을 일떠세우자고 그처럼 절절히 호소하시는데 동무는 이런 초라한 전시물들을 내놓고 어떻게 그앞에 기관명칭을 버젓이 내걸수 있는가.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일을 이렇게 겉핥대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일군으로서의 추궁이기 전에 불령이같은 애국의 량심을 지닌 한 인간의 심장의 토로였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한 군기관의 일군이 하는 말이였다.

그렇게 되여 교육지원전시회는 무려 3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한번 또 한번… 책임비서는 그 한번한번의 전시회가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번째만에야 합격도장을 받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는 군안의 교육자들과 일군들의 감동은 컸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맑고 뜨거운 마음들이 후럼게 어려오는 전시회장은 그대로 딸라진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것이였다.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교육사업은 군사업의 첫 《의정》이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군일군들의 두뇌와 심장속에 언제나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어야 한다는것,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태도와 관점을 확립할때만이 당의 교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다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사업의 영원한 첫 의정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교육사업을 또 하나의 혁명임무로 무겁게 자각할 때이 땅우에 새 세기 교육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값높은 실천으로 받들수 있다는것을 태천군일군들의 경험은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기수는 누가 되여야 하는가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위한 투쟁에서도 기수가 있어야 한다. 그 기수는 누가 되여야 하는가. 두말할것없이 우리 일군들이다.

태천군의 교육사업이 잘되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군의 책임일군들이 당의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기수의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이곳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에는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그것은 우선 대중이 본받고 따를수 있게 제일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진짜배기이신작칙이라는것이다.

군안의 일군들과 교육자들모두가 군당책임일군의 이신작칙을 두고 군교육사업을 떠미는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말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군안의 일군들속에서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일 어렵고 힘든 과제는 마땅히 책임비서가 맡아 푸는것으로 인정되고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군책임일군의 이신작칙의 열도를 짐작할수 있다.

군에서 제일 멀리에 있는 학교가 군당과 제일 가까와진 학교로 된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군에는 읍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일군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학교가 있었다. 환현고급중학교였다.

군안의 교육사업을 료해하던 책임비서가 이 학교를 처음으로 찾은것은 어느해 여름이였다. 당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뒤떨어진 학교를 돌아보는 그의 마음은 납덩이라도 매단듯 무거워졌다.

《만약 우리 일군들속에 그 학교에 자식을 둔 부모가 있었다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먼곳에 있는 학교일수록 우리 일군들의 마음속에는 더 가까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 환현고급중학교는 내가 맡겠습니다. …》

군안의 책임일군들이 뒤떨어진 학교들을 하나씩 맡아 일신시키기 위한 전투는 이렇게 책임비서가 환현고급중학교를 자진하여 담당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책임비서를 맡나려면 환현고급중학교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학교개건전투장에 자주 나가있었다. 먼곳에서 지도나 하고 보지도 못한 결과를 놓고 총화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설계를 펴고 계획을 세우며 건설주가 되고 시공주가 되여 학교개건에 분투하는 책임비서의 모습은 그대로 하나의 힘있는 선동이였다.

학교는 짧은 기간에 몰라보게 달라졌다. 교사내외부미장에 이어 수많은 책걸상을 수리, 도색하여 교실들에 들여놓았으며 교재림과 지리학습터를 번듯하게 꾸리고 학교둘레에는 1,000여그루의 파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어 봄이면 꽃속에, 가을이면 열매속에 묻히게 만들었다. 문화후생시설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고 운동장도 음지구의 학교들 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닦아놓았다.

환해진 학교마당으로 들어서는 교직원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의 얼굴에 이름하지 못할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군안의 일군들과 학교일군들의 가슴도 후더워졌다.

간혹 어떤 일군들은 교육사업을 중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시그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대치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신작칙이라고 말할수 없다. 불난데 물대는 식의 이런 일본새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준 당의 뜻을 옳바로 받들수 없기때문이다.

태천군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점은 군교육사업발전을 위한 주도세밀한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완강한 실천이다.

군당과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한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될무렵이면 한자리에 모여앉아 다음해 군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한다. 그런 계기들에 이들은 반드시 군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작전한다.

실례로 지난해에는 음지구의 모든 학교교실들에 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물질적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전행하였다면 올해에는 군안의 60%이상의 학교 교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내밀고있다. 군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바로 이 계획실현을 위한 이신작칙으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효과가 더욱 크다.

올해 봄 군안의 모든 학교들에서는 지붕에 새 기와를 얹는 중경이 일시에 펼쳐졌다. 이것 역시 군책임일군들이 이미전부터 면밀히 계획하고 주도세밀하게 준비를 다 그친것이였다.

사실 군안의 모든 학교들의 지붕을 동시에 교체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군의 책임일군들은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준비부터 착실하게 갖추도록 하였다. 자신들부터가 조건이 제일 불리한 학교들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도 보장해주면서 일단 기와찍는 전투가 벌어지면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도록 앞장에서 이끌어주었다. 기와를 붙철에 교체하려면 그 준비는 겨울철에 기본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타산밑에 석탄보장도 미리미리 앞당겨 해줌으로써 지난 겨울동안 군안의 모든 학교에서 수많은 기와를 찍어 지붕을 교체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결국 그처럼 어렵게 생각되던 학교들의 지붕교체사업은 올해 봄철부터 일제히 시작되여 지금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일단 세운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관철하는것 역시 태천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엿보게 되는 좋은 기풍이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종이장우의 구사 건막도의 그림으로만 남는다면 의의가 없다. 하기에 군의 책임일군들은 일단 세운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실천하는 좋은 기풍을 앞장에서 보여주었다.

지난해 12월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뚜렷한 례증으로 된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있던 그때 군에서는 무심히 스쳐수 없는 하나의 일에 부닥치게 되였다. 음지구 학교들의 교실들에 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물질적조건을 갖추어주는 사업이 긴장한 자금문제로 하여 제 결속되지 못한 사실이였다. 군에서는 미래원과 문화회관, 살림집건설도 시급히 다그쳐 끝내야 하는 상태였다.

자금을 어디에 먼저 돌릴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론의가 벌어졌다. 계획대로 교육설비들을 장만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장 마무리해야 할 건설대상들에 자금을 먼저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계획했던대로 교육설비부터 마련해줍시다. 다른 일은 오늘 못하면 래일 봉창할수 있지만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새 교육설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소.》

책임비서의 굽힘없는 의지앞에 모두의 마음은 후더워졌다. 누구보다 군건설때문에 마음을 쓰면서도 후대교육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한걸음도 양보할줄 모르는 그 모습은 열백마디 말보다 더 많은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있던것이다. 그렇게 되여 태천군에서는 도적으로 제일먼저 음지구 학교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는 사업을 100%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일군들이 견인기적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견인기의 마력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우리는 그 대답 역시 태천군 책임일군들의 사업에서 찾게 된다. 물론 우리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잘 도와주자면 해박한 교육학적지식도 필요하고 불같은 열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품성이고 자질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다.

태천군의 학교들을 찾으면 《책임비서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군에서 맡아 돌보고있는 부모잃은 수십명의 아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어렵게 되여 그애들이 책임비서의 자식들이 되였는가.

어느날 저녁 부모잃은 아이들이 생활하고있는 곳으로 찾아갔던 책임비서는 음에서 멀리 떨어진 그 마을의 입구에 오래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다. 눈앞에는 방금 만나본 아이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다음날 그는 반나절이나 음지리를 돌고 또 돌았다. 그때서 찾아낸 한채의 건물이 바로 지금 아이들이 쓰고있는 희한한 건물이다. 군당청사와 가까이 위치하고있는 그 건물을 아이들의 보금자리로 만들 결심을 굳힌 책임비서는 그 기관의 일군들을 설복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얼마후에는 새로 훌륭하게 꾸린 그 건물에 아이들을 이사시켰다.

그때부터 지기에는 책임비서의 발자욱이 수시로 찍히였다. 아이들은 김승일책임비서를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이들의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며 친자식처럼 정을 다해 키우고있는 어머니들은 다름아닌 책임비서의 안해를 비롯한 군당가족들이다.

명절날과 휴식일은 물론 생일날에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들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승일책임비서는 형식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아버지구실을 하는 일군이다.

올해 봄, 새학년도가 시작된 음내의 여러 학교에 군당책임일군이 아니라 학부형의 자격으로 찾아간 사람도 그였고 운동회를 하는 날에도 친부모가 되여 성의껏 마련한 밥곽을 안고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다닌 사람들도 바로 군당책임비서와 그의 안해였다. 아이들의 담임교원들을 만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당부하는 그들을 보며 군안의 교육자들과 일군들은 누구라 없이 가슴뜨거워오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하다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은 타고난 천성인가.

올해 1월 1일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필것이다.

새해 첫아침, 텔레비존화면을 통해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한없는 격정속에 우러르며 올해에도 그이를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굳힌 김승일책임비서의 눈앞에 제일먼저 어려오는 얼굴들이 있었다. 부모잃은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그의 발걸음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날 김승일책임비서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였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듣고 크면 영웅이 되고 박사, 인민군대가 될 희망과 포부도 들어주며 우리 원수님을 받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기도 하였다. 책임비서의 뒤를 이어 많은 군안의 수많은 일군들이 부모잃은 아이들을 찾아가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었다.

다음날 군안의 일군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격정없이는 들을수 없는 소식에 접하였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첫날을 우리 원수님께서 평양옴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함께 보내시였다는 가슴뜨거운 혁명활동보도였다. 크나큰 흥분속에 그 소식을 접하고 평양하늘을 삼가 우러르는 김승일책임비서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진심은 이렇게 언제나 한뿌리로 흐르는 법이다.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인생의 거울로 삼고 그이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드는 진정의 일군, 이런 일군만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새 세기 교육강국건설의 당당한 기수가 될수 있다는 것을 태천군일군들이 새겨가는 삶의 보록이 말해주고있다.

* *

시, 군 책임일군들은 나라의 200분의 1을 담당한 호주이다. 그 지역의 교육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서, 군 책임일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교육사업을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조국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문제로, 자기 고장 아이들을 위한 일, 자기 자식들을 위한 일로 여기며 누가 보건말건 스스로 어깨를 들이밀고 교육강국건설의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해가는 일군이야말로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우리 원수님과 발걸음을 같이하는 진짜배기전우, 애국적이고 량심적인 동지라고 말할수 있다.

모든 시, 군 책임일군들은 태천군일군들처럼 교육사업을 자신의 두어깨에 걸머진 또 하나의 중요한 혁명임무로 여기고 진심을 바치며 투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 나라를 새 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하루빨리 이 땅우에 현실로 꽃펴나게 된다는것을 태천군일군들이 새겨가는 헌신의 자욱자욱은 오늘의 우리 시대에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강진형
본사기자 김명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가 꾸바공화국 외무상을 만났다

꾸바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가 26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빠릴라 꾸바외무상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 박창을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오스까르 마르띠네스 꼬르도베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외무상은 꾸바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변함없이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높이 찬양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꾸바는 현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원칙을 끝까지 고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대표단은 호쎄 마르띠기념당, 꾸바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아바나시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프랑스실업계대표단 만경대방문

알랑 윙 프랑스 《띠또르 쌕갈랜기금》 중국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실업계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일군들과 공청원들 백두산지구답사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일군들과 공청원들이 25일부터 27일까지 백두산지구를 답사하였다.

그들은 일찌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삼지연못가에 높이 모신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밀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그들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감명깊게 들었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담사단 단장인 예브게니 랴센꼬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변강위원회 1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답사를 통하여 백두의 정신을 잘 알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준비부터 착실하게 갖추도록 하였다. 자신들부터가 조건이 제일 불리한 학교들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들도 보장해주면서 일단 기와찍는 전투가 벌어지면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도록 앞장에서 이끌어주었다. 기와를 붙철에 교체하려면 그 준비는 겨울철에 기본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타산밑에 석탄보장도 미리미리 앞당겨 해줌으로써 지난 겨울동안 군안의 모든 학교에서 수많은 기와를 찍어 지붕을 교체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결국 그처럼 어렵게 생각되던 학교들의 지붕교체사업은 올해 봄철부터 일제히 시작되여 지금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일단 세운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관철하는것 역시 태천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엿보게 되는 좋은 기풍이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종이장우의 구사 건막도의 그림으로만 남는다면 의의가 없다. 하기에 군의 책임일군들은 일단 세운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실천하는 좋은 기풍을 앞장에서 보여주었다.

지난해 12월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뚜렷한 례증으로 된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있던 그때 군에서는 무심히 스쳐수 없는 하나의 일에 부닥치게 되였다. 음지구 학교들의 교실들에 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물질적조건을 갖추어주는 사업이 긴장한 자금문제로 하여 제 결속되지 못한 사실이였다. 군에서는 미래원과 문화회관, 살림집건설도 시급히 다그쳐 끝내야 하는 상태였다.

자금을 어디에 먼저 돌릴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론의가 벌어졌다. 계획대로 교육설비들을 장만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장 마무리해야 할 건설대상들에 자금을 먼저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계획했던대로 교육설비부터 마련해줍시다. 다른 일은 오늘 못하면 래일 봉창할수 있지만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새 교육설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소.》

책임비서의 굽힘없는 의지앞에 모두의 마음은 후더워졌다. 누구보다 군건설때문에 마음을 쓰면서도 후대교육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한걸음도 양보할줄 모르는 그 모습은 열백마디 말보다 더 많은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있던것이다. 그렇게 되여 태천군에서는 도적으로 제일먼저 음지구 학교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는 사업을 100%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일군들이 견인기적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견인기의 마력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우리는 그 대답 역시 태천군 책임일군들의 사업에서 찾게 된다. 물론 우리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잘 도와주자면 해박한 교육학적지식도 필요하고 불같은 열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품성이고 자질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다.

태천군의 학교들을 찾으면 《책임비서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군에서 맡아 돌보고있는 부모잃은 수십명의 아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어렵게 되여 그애들이 책임비서의 자식들이 되였는가.

어느날 저녁 부모잃은 아이들이 생활하고있는 곳으로 찾아갔던 책임비서는 음에서 멀리 떨어진 그 마을의 입구에 오래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다. 눈앞에는 방금 만나본 아이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다음날 그는 반나절이나 음지리를 돌고 또 돌았다. 그때서 찾아낸 한채의 건물이 바로 지금 아이들이 쓰고있는 희한한 건물이다. 군당청사와 가까이 위치하고있는 그 건물을 아이들의 보금자리로 만들 결심을 굳힌 책임비서는 그 기관의 일군들을 설복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얼마후에는 새로 훌륭하게 꾸린 그 건물에 아이들을 이사시켰다.

그때부터 지기에는 책임비서의 발자욱이 수시로 찍히였다. 아이들은 김승일책임비서를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이들의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며 친자식처럼 정을 다해 키우고있는 어머니들은 다름아닌 책임비서의 안해를 비롯한 군당가족들이다.

명절날과 휴식일은 물론 생일날에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들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승일책임비서는 형식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아버지구실을 하는 일군이다.

올해 봄, 새학년도가 시작된 음내의 여러 학교에 군당책임일군이 아니라 학부형의 자격으로 찾아간 사람도 그였고 운동회를 하는 날에도 친부모가 되여 성의껏 마련한 밥곽을 안고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다닌 사람들도 바로 군당책임비서와 그의 안해였다. 아이들의 담임교원들을 만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당부하는 그들을 보며 군안의 교육자들과 일군들은 누구라 없이 가슴뜨거워오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하다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은 타고난 천성인가.

올해 1월 1일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필것이다.

새해 첫아침, 텔레비존화면을 통해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한없는 격정속에 우러르며 올해에도 그이를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굳힌 김승일책임비서의 눈앞에 제일먼저 어려오는 얼굴들이 있었다. 부모잃은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그의 발걸음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날 김승일책임비서는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였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듣고 크면 영웅이 되고 박사, 인민군대가 될 희망과 포부도 들어주며 우리 원수님을 받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기도 하였다. 책임비서의 뒤를 이어 많은 군안의 수많은 일군들이 부모잃은 아이들을 찾아가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었다.

다음날 군안의 일군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격정없이는 들을수 없는 소식에 접하였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첫날을 우리 원수님께서 평양옴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함께 보내시였다는 가슴뜨거운 혁명활동보도였다. 크나큰 흥분속에 그 소식을 접하고 평양하늘을 삼가 우러르는 김승일책임비서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진심은 이렇게 언제나 한뿌리로 흐르는 법이다.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인생의 거울로 삼고 그이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드는 진정의 일군, 이런 일군만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새 세기 교육강국건설의 당당한 기수가 될수 있다는것을 태천군일군들이 새겨가는 삶의 보록이 말해주고있다.

* *

시, 군 책임일군들은 나라의 200분의 1을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 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물결이 수도의 거리들에 흐를무렵이면 쑥섬의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흥성인다. 낮에 이어 밤에도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이곳으로 하루일을 마친 수도의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기때문이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달동안 대건설전투장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으로 산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쑥섬에는 그런 청년들이 수백명이나 된다.

매일 지녁 전투장에서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맞들이질을 벌리는 청년대학생들도 있고 일터에 바치는 위훈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퇴근길을 쑥섬에 이어놓고 사는 청년들도 많다.

용솟음치는 힘과 열정을 부강조국건설에 아낌없이 바쳐가며 그림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는 미래은 청춘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지용,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학생 리충금동무를 비롯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에게 감사를 안겨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온 돌격대는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그날따라 건설장의 곳곳에서 더 기세차게 휘날리는 야간지원청년돌격대기발을 바라보며 청년들은 쑥섬전역에 새겨온 열정과 헌신의 자욱들을 굳게 굳게 되새겨보았다.

드넓은 건설장의 한곳에 수수한 천막이 있다. 겉보기에는 별다른데가 없는 소박한 천막이지만 그안에 넘치는 청년들의 열정과 랑만은 끝이 없다.

여기가 바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지휘부이다.

낮동안 조용하던 천막은 지녁이 되면 활기를 띤다. 수도의 각곳에서, 각이한 일터에서 모여오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과업을 받아안고 건설장의 중요전투장들마다에 배치된다.

피끓는 청년들이여서 해제끼는 일감도 간단치 않다. 야간지원청년돌격대가 건설장에 나타나면 록록 일자리가 나는것이 알린다고 건설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어렵고 힘든 일에 스스로 어깨를 들이밀고 피끓는 청춘의 열정을 조국의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기는 길에 아낌없이 바쳐가는 훌륭한 청년들에 대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인 서광명동무는 하나의 명부를 내놓았다. 쑥섬의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명부였다. 한장 또 한장 번질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주사범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을 비롯하여 시안의 거의 모든 대학들의 이름이 다 올라있는것 같았다. 그런가하면 성, 중앙기관들과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달려나온 청년들도 있었다.

대학생, 의사, 교원, 연구사…

각이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지만 하나의 마음을 안고 여기 쑥섬으로 모여와 애국의 별부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은 마냥 후더워올랐다.

《우리 동무들이 일하는 건설현장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게 어떻습니까.》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시원한 밤공기가 흐르는 밖으로 나섰다.

환한 불빛아래 온 건설장이 백열전등을 밝리고있는데 드넓은 건설장 어디서나 세차게 휘날리는 야간지원청년돌격대기발을 볼수 있었다.

10여개의 대대가 경쟁적으로 일감을 맡아안고 기세를 올리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 하였다. 그속에서도 역시 용남산의 아들딸들이 앞장에 서있었다.

얼마전 길은 밤에도 비가 억수로 퍼붓는 속에서 백일영, 리은성동무를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 일손을 멈추지 않고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적기가》를 부르며 맡은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였는데 정말 모두가 그 모습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온 건설장이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차있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오늘도 병사의 자세로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김철주사범대학 학생 김영광, 평양콤퓨터기술대학 학생 박일혁동무들의 모습도 우리는 무심히 볼수 없었다.

돌격대원들속에는 구면친구들도 있다. 류성지도국 아래단위 로동자 지미예, 락원지도국 부원 전일통동무들은 지난 기간 수도의 여러 기념비적창조물들에 청춘의 값높은 자욱을 새겨온 야간지원청년돌격대의 구대원들이다.

창전거리건설장, 만경대유희장개건보수전투장,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건설장, 청춘거리체육촌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전투장마다에 새겨온 이들의 헌신의 자욱은 안아볼수록 후더웠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 또다시 약속이나 한듯이 여기 쑥섬에서 만났다고 하니 청춘의 참된 삶의 좌표는 당이 부르는 시대의 전렬임을 이들의 모습은 감명깊게 새겨주고있었다.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인 오늘 나는 교육자로서, 이 땅의 청춘으로서 멋있게 살고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쑥섬에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선다는 소식을 듣고 선참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참된 교육자가 되고싶습니다.》

금성제1중학교 교원 신진동무의 말은 또 얼마나 의미심장한가.

쑥섬은 어디 가나 이런 아름다운 청춘들의 이야기로 가득찬 곳이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샘물처녀로 부르는 평양토시경영기술대학(전문반)의 류창미동무, 매일 지녁 어머니와 함께 맑고 시원한 샘물을 한가득 안고 건설장을 찾군 하는 그를 군인건설자들모두가 자랑한다. 샘물보다 맑고 깨끗한 그의 진정이 마음속에 흘러들 때마다 열백배의 힘과 용기를 받아안군한다는 군인건설자들의 그 이야기를 어찌 무심히 들을수 있으랴.

청춘시절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절이다. 피끓는 힘과 열정, 넘치는 리상과 포부…

그러나 그것은 당의 뜻과 구상을 꽃피우는 길에 바쳐질 때에만 참랑게 빛나는것임을 심장으로 체득한 청년들이 바로 쑥섬의 청춘들, 이 땅의 미더운 청년들인것이다.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주도록 하시고 몸소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새겨져있었고 보람의 한길에서 청춘을 빛내일 불타는 맹세가 세차게 맥박치고있었다.

타락과 유흥의 밤거리를 헤매는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은 리해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기여가는 우리의 미더운 청춘들.

불야경을 이룬 쑥섬의 밤풍경이 우리에게 더욱 유정하게 안겨왔다. 충정과 애국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을 뿌리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 과학의 섬으로 변모될 쑥섬의 래일도 아름답지만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앞날이야말로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본사기자 김경철

교정에 차넘치는 민족의 향취

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를 찾아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학교, 항일의 아동단원의 이름으로 긍지높은 학교, 11명의 영웅을 배출한 학교,

이것이 얼마전 우리가 찾았던 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의 자랑이였다.

자랑은 결코 이것뿐이 아니였다. 민족기악병창을 잘하는 재간동이들이 많은것이 이 학교의 남다른 자랑의 하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홍겨운 가야금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학생들의 구성진 민요소리가 울려나오는 어느 한 방이였다.

전문가 못지 않게 가야금을 능숙하게 다루는 학생들의 기특한 모습을 보며 연해연방 감탄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장 문성실동무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

수십년전 이 학교 학생들이 출연한 양금협주곡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접작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학교는 민족기악병창을 잘하여 이는 학교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학교, 항일의 아동단원의 이름으로 긍지높은 학교, 11명의 영웅을 배출한 학교,

이것이 얼마전 우리가 찾았던 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의 자랑이였다.

자랑은 결코 이것뿐이 아니였다. 민족기악병창을 잘하는 재간동이들이 많은것이 이 학교의 남다른 자랑의 하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홍겨운 가야금곡조에 맞추어 부르는 학생들의 구성진 민요소리가 울려나오는 어느 한 방이였다.

전문가 못지 않게 가야금을 능숙하게 다루는 학생들의 기특한 모습을 보며 연해연방 감탄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장 문성실동무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

수십년전 이 학교 학생들이 출연한 양금협주곡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접작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학교는 민족기악병창을 잘하여 이는 학교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때로부터 학교는 심여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이처럼 우리 학교는 민족기악병창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깊은 인연을 맺은 영광의 학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악기를 하나 연주하고 노래를 한곡 불러도 민족악기를 연주하고 민요를 부르는 아이들을 만나시면 못내 대견해하시며 잊지 못해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였다.

홍취나는 장고소리에 저도모르게 발길이 끌려 우리는 2층에 있는 소조실에도 들리였다.

거기서 우리는 음악교원들인 김진주, 안수향, 리은하동무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온 학교학생들이 민족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재간동이들로 준비하도록 하는데 바쳐진 이곳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다소나마 느낄수 있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학교에서는 음악소조에 망라된 몇몇 학생들만 가지고 민족기악병창공연을 준비하군 하였다. 그러다나니 음악소조에 다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그 자리를 메우느라 애를 먹군 하였다.

-몇몇 학생들로 음악소조나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만족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민족기악병창을 잘하는 우리 학교를 아시지 몇몇 학생들을 아시는것이 아니지 않은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교원력량도 그렇고 악기문제도 그렇고 해결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찾은 결론이 바로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민족악기를 능숙히 다룰수 있게 하는것이였다.

하여 학교에서는 먼저 본보기학급을 만들고 전교의 학부형들앞에서 민족기악병창공연을 조직하였다. 공연에 대한 반영이 대단하였다. 자식들을 공부에만 치우치게 하던 부모들과 자신심이 없어하던 교원들이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기 시작하였다.

월마다 진행하는 학과경연총화에는 개별적학생들의 민족악기연주기량과 함께 학급별민족기악병창공연에 대한 평가가 무조건 포함되였다.

결과 학생들의 기량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였으며 전국적인 학생예술축전에 한개 학급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여 민족기악부문에서 1등을 쟁취하기도 하였다.

민족음악과 더불어 학교의 자랑은 끝없이 뻗쳐났다.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졸업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고음지대를 연주하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은 소식이 전해져 온 학교가 또 얼마나 기쁨에 설레이였던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민족음악교육을 장려하는것은 결코 예술적재능만을 키워주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내 조국의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는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참된 애국사업이다.

민족적향취 넘쳐나는 교정을 떠나는 우리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크나큰 격정이 끝없이 샘솟아올랐다.

김성민

체육열풍은 이역의 동포사회에도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따사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자기의 소년궁전에서 - 평양학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있으며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과 찬란한 미래를 보고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새벽 평양산원에서 새 생명이 고고성을 터쳤다. 6.25에 태어난 새 생명!

평범하게만 여겨지던 새 생명의 출생이 이날에는 범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속에 전쟁이라는 단어와 결부된 6월 25일, 이날에 울린 아기의 고고성이 의미심장하게 새겨지며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미제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평토에 침략의 불을 질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나날로부터 6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65년전의 그날에도 아기의 고고성은 울렸을것이다. 태어난 아기를 두고 기쁨에 겨웠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려온다. 아들을 낳았다고 으쓱했을 애기아버지의 얼굴도 눈에 삼삼하다. 허나 그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을가.

나의 눈앞에는 기록영화의 화면들에서 보았던 불쉬리치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미국놈의 기총탄에 맞아 숨이 진 엄마의 한 젖가슴을 헤비며 목놓아울던 어린이의 모습, 참혹하게 불타버린 집터에 나뒹굴던 주인잃은 어린것들의 장난감…

그때서 전화의 그날 이 땅의 한 병사시인은 굳북의 구리단추를 젖꼭지인줄 알고 놓지 않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군복입은 사나이 엄마젖은 없을가》라는 유명한 시구절을 피땅이처럼 쏟지 않았던가. 하지만 3년간의 영웅적투쟁으로 우리 인민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끝끝내 지켜냈고 수십년세월 제국주의매무리와의 우리의 미래가 터치는 삶의 고고성이 귀중하기에 우리는 65년세월을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 원쑤와 싸우고있다.

평화로운 이 땅우에 울려퍼지는 새 생명의 고고성, 이는 그 먼 침략의 불구름이 이 땅에 밀려온대도 선군조선의 억세고 줄기찬 삶의 흐름, 행복의 노래소리는 막을수 없다는 우리 생활의 아름다운 음향이고 박동이다. 그래서이리라. 6월 25일에 태어난 아기의 고고성이 나의 심장을 그토록 세차게 울려주는것은.

65년전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피타는 절규의 웨침, 전쟁에 항거하는 이 나라 인민의 피절은 웨침이였다면 오늘날 행복의 장가에 울려퍼지는 아기의 고고성은 그 어떤 원쑤의 폭탄도 막지 못할 행복의 메아리, 전쟁을 강요한 무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이다.

나는 이 땅에 태여나고 또 태여날 아이들의 밝은 웃음고리와 그들의 앞길에 울려퍼질 행복의 대교향곡을 듣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전선길의 자욱자욱에서 떨기떨기 꽃송이마냥 엮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듣는다.

아이들아 한껏 웃어라. 그리고 온 세상에 노래하라. 너희들의 앞길엔 태양이 눈부시고 이 세상의 천만복이 기다린다.

강효심

국제정구경기규칙(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구는 몸을 단련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경기정구경기에는 어느 한선수가 먼저 4알을 득점하면 끝나는 작은 회전과 이러한 작은 회전을 6번 이기면 끝나는 큰 회전이 있다.

큰 회전 5회3승의 방법으로 최종승부를 결정한다.

작은 회전에서 첫공을 득점하면 15점(1알), 두번째 공을 득점하면 15점을 더 주어 30점(2알)이 된다.

세번째 공을 득점하면 10점을 더 주어 40점(3알)이 된다. 만약 두 선수가 40점(3:3)일 때에는 먼저 2알을 련속 득점하는 선수가 그 작은 회전을 이긴것으로 된다.

작은 회전을 6번 이기면 큰 회전을 한번 이긴것(큰 회전 1:0)으로 된다.

한차례의 큰 회전에서 5:5일 때는 작은 회전을 먼저 두번 련속 이기는 선수가 큰 회전을 한번 이긴것으로 된다.

작은 회전결과가 6:6이 되거나 8:8 동점이 되면 다음회전에서는 알수경기체계(타이브레크)를 적용한다.

알수경기체계는 마지막 큰 회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알수경기체계에서는 먼저 7점을 득점하는 선수가 그 회전에서 이기게 된다.

6:6 동점이 되는 경우 2점차이가 생길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처녀기차례인 선수는 첫 처녀기선수로 되며 상태편선수는 두번째와 세번째 처녀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회전이 끝날 때까지 두알씩 처녀기를 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경기장자리바꾸기는 6:0, 5:1, 4:2, 3:3일 때 즉 여섯번째 처녀기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한다.

첫번째 자리바꾸기를 진행한 후 점수가 6:1, 6:2, 6:3, 6:4, 6:5, 6:6이 되여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또 자리를 바꾸고 2점차이가 생길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알수경기체계가 적용되는 회전에서 첫 처녀기를 한 선수는 다음의 큰 회전의 첫 작은 회전에서 받아치기를 하여야 한다.

경식정구경기에서 자리바꾸기는 작은 회전의 1회전, 3회전, 5회전 등 홀수회전이 끝나고 2회전, 4회전, 6회전 등 짝수회전이 시작될 때 한다.

또한 마지막 작은 회전이 홀수로 큰 회전이 끝났다면 다음 큰 회전의 작은 1회전이 시작될 때, 자리바꾸기를 잘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고있다가 발견되였을 때에 진행한다.

경식정구에서 단식경기규칙은 복식경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알수경기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단식과 복식경기에서 처녀기가 차이난다.

조선체육대학 교원 리해성

6.25의 고고성

‖수 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있으며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과 찬란한 미래를 보고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새벽 평양산원에서 새 생명이 고고성을 터쳤다. 6.25에 태어난 새 생명!

평범하게만 여겨지던 새 생명의 출생이 이날에는 범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과 더불어 우리의 가슴속에 전쟁이라는 단어와 결부된 6월 25일, 이날에 울린 아기의 고고성이 의미심장하게 새겨지며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미제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평토에 침략의 불을 질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나날로부터 6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65년전의 그날에도 아기의 고고성은 울렸을것이다. 태어난 아기를 두고 기쁨에 겨웠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려온다. 아들을 낳았다고 으쓱했을 애기아버지의 얼굴도 눈에 삼삼하다. 허나 그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을가.

나의 눈앞에는 기록영화의 화면들에서 보았던 불쉬리치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미국놈의 기총탄에 맞아 숨이 진 엄마의 한 젖가슴을 헤비며 목놓아울던 어린이의 모습, 참혹하게 불타버린 집터에 포성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조국의 래일을 부르는 아기들의 고고성을 지켜냈다.

아니, 지켜낸것만이 아니라 날파 달파 해와 더불어 더 아름답게, 더 우렁차게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행복의 고고성을 터쳐올렸다. 이 땅우에 선군으로 떠올린 푸른 하늘, 평화가 가져온 고고성이였고 행복이였다.

65년전의 6.25는 다시는 되풀이되여서는 안되였기에 제난의 울음소리, 살륙의 부르짖음소리는 영영 옛 기록에만 남아있어야 했기에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무적의 군력을 다져온것이 아닌가.

이 나라의 한 녀류시인이 사랑과 증오로 불타는 심장으로 한자한자 쓴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노래구절을 어찌 무심히 부를수 있으랴.

평화가 소중하기에, 사랑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는 피타는 절규의 웨침, 전쟁에 항거하는 이 나라 인민의 피절은 웨침이였다면 오늘날 행복의 장가에 울려퍼지는 아기의 고고성은 그 어떤 원쑤의 폭탄도 막지 못할 행복의 메아리, 전쟁을 강요한 무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이다.

나는 이 땅에 태여나고 또 태여날 아이들의 밝은 웃음고리와 그들의 앞길에 울려퍼질 행복의 대교향곡을 듣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는 전선길의 자욱자욱에서 떨기떨기 꽃송이마냥 엮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행복의 노래를 듣는다.

아이들아 한껏 웃어라. 그리고 온 세상에 노래하라. 너희들의 앞길엔 태양이 눈부시고 이 세상의 천만복이 기다린다.

강효심

과일향기 넘치는 마을

로산군 북포협동농장 제3작업반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치 파수원에 들어선것처럼 기분이 절로 상쾌해지는것을 느낄수 있다.

집집마다 줄지어 서있는 과일나무들에서 풍겨오는 향기때문이다.

이곳 작업반원들은 집마당에 5그루이상의 과일나무들을 심어 농장을 과일향기 풍기는 하나의 과수원으로 전변시키고있다.

지난 시기 작업반에서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정성껏 심어놓았을뿐만아니라 거름주기, 가지자르기와 병해충구제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결과 한그루의 나무도 허실하지 않고 잘 키워 북숭아, 추리, 살구, 사과 등 갖가지 과일들을 철따라 따들여 그 력을 톡톡히 보고있다.

특히 김창석, 전정철세대들은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 순수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각각 10여그루의 과일나무들을 정성껏 관리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과일나무심기를 유훈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제3작업반의 모범을 본받아 농장의 모든 세대들에서 5그루이상의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로농통신원 서종남

효능높은 항진균약 개발

최근 세계적으로 사람들속에서 광폭항생제, 호르몬제,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져 진균성피부병환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효능높은 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병정린톰이 높은 진균성피부병치료에는 흔히 부작용이 적은 외용항진균약이 쓰이고있다.

현재 외용항진균약으로는 치료효과가 매우 좋아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벤질아민계 항진균약이 림상실천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진균에 대한 살균작용이 센 부테나핀은 1990년대에 개발된 벤질아민계 항진균약으로서 항피부사상균활성이 다른 항진균약들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광폭항진균약으로서 치료효과가 빨리 나타남뿐아니라 부작용이 거의나 없어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가지 피부사상균감염증치료에 좋은 기본약물의 하나로 평가되고있다.

의학과학원 합성제약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세계적수준의 항진균약을 연구개발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지난 몇해동안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들은 앞선 정밀유기합성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치는 한편 완강한 의지와 불같은 열정을 안고 수백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 부테나핀의 총거동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으며 우리의 자재와 원료, 기술에 의거하는 항진균약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

새로 개발한 항진균약을 림상실천에 적용한 결과 손발무좀과 전신 등의 치료효률은 95%에 달하였으며 재발률은 적었다.

지금 이곳 연구사들은 해당 단위 종합원들과의 련계밑에 항진균약생산의 공업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할 열의를 안고 힘찬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대서양연어바다양어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자면 현대양어발전추세를 잘 알고 선진적인 양어과학기술과 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잘 짜들어야 합니다.》

연어는 크게 칠색송어류, 태평양연어류, 산천어류, 사루기류, 얼룩어류, 정장어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물고기들은 종에 따라 강과 바다를 오르내리는것도 있고 민물에서만 사는것도 있다.

연어는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당뇨병과 급성간염, 비뇨기계통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연어에 있는 불포화기름산은 로화를 방지하고 인체의 순환기계통질병치료와 암예방에 효과적이다.

1970년대초에 시작된 연어바다양어는 세계적으로 그 생산량이 체계적으로 늘어나 오늘은 바다양어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칠색송어류에 속하는 대서양연어는 특별히 기름지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높고 성장속도가 빠르므로 오늘 세계적으로 바다그물우리양어에 매우 적합한 대상으로 되고있다.

물고기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는 태평양연어와 산천어를 비롯하여 연어류만도 수십종이 분포되여있으며 오늘은 대서양에서 살던 대서양연어가 중토산화되여 바다그물우리양어가 시작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바다양어에 리용하는 대서양연어는 야생연어로부터 선발육종한 도입품종으로서 몸형태가 옆으로 넓적한 실북모양이며 태평양연어보다 더 날씬하고 길죽한 형이다.

길이는 보통 4년생에서 70~90㎝이며 무게는 4~9㎏이다. 길이가 90~105㎝, 무게가 8~13㎏정도 되는것도 있다. 대서양연어의 수명은 보통 3~6년이며 최고 13년까지 사는것도 있는데 이때 수컷은 몸길이가 150㎝, 무게는 40㎏이고 암컷은 120㎝, 무게가 20㎏ 되는것도 있다.

몸색깔은 등쪽이 검푸른색이며 크고작은 검은색점들이 아가미뚜껑과 측선 웃부분에서 등쪽까지 분포되여있으며 몸측면은 푸른색색 또는 은빛색이고 배부위는 은빛흰색이다.

암컷의 알가짐량은 엄지몸무게의 16~30%이다. 엄지몸무게 1㎏당 2000~3000알정도이다. 연어는 새끼물고기시기에는 민물에서 살고 그 후에는 바다에서 생활한다.

대서양연어의 바다양어에서는 연어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알받이 및 새끼물고기기르기는 민물양어장에서 하고 비육물고기 및 었지물고기기르기는 바다에 설치되여있는 그물우리에서 한다. 바다에서 대서양연어는 수심이 보통 15m 혹은 그이상 되는 곳에서 산다.

대서양연어의 알받이는 바다에서 살다가 알쓸이시기에 강으로 오르는 생리적특성에 맞게 바다에서 기르던 성숙단계에 이른 엄지물고기를 민물환경에 옮겨 진행한다.

알받이는 주로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진행한다.

알낳은 붉은감색이며 알직경이 6㎜로서 태평양연어알보다 약간 작다. 대서양연어는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로서 서식물온도범위는 -1~23℃, 가장 알맞는 범위는 10~16℃이다.

대서양연어는 태평양연어보다 성격이 온순하며 사람따름성이 좋고 집약화양어에 유리하다.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원장 신상일

천출명장을 모시여 무적의 기상 떨치는 혁명강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편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만총포사격경기대회가 러친 새해 첫포성의 메아리가 울림없이 울려퍼지여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려단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 적항공모함을 가상한 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적함신집단을 먼거리에서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게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케트의 시험발사,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인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수중시험발사…

활화산에서 뿜어져나오는 거세찬 용암마냥 선군의 거대한 힘이 장쾌하게 분출하고있다. 천하를 울리는 백두의 뢰성에 놀란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천둥에 떠는 잠충이들처럼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전개된 수많은 침략의 전초기지들과 발진기지들을 단숨에 날려보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타격력앞에 분별없이 너덜거리던 호전광무리들은 기가 질리여 옴짝달싹 못하고있다.

《김정은제1위원장의 담대한 성격이 반영된 훈련》, 《보란듯이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북이 2015년을 통일대전완성의 해로 선포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등의 아우성이 적진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북 잠수함보유수 세계 1위》, 《수중에서 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잠수함 보유》, 《300㎜신형방사포 서울을 함락할수 있을 정도로 위력》, 《세계가 알지 못하는 신형류탄발사기 보유》 등의 충격적인 보도들로 온 남조선땅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우리의 초정밀타격수단들이 하늘을 헤가르는 이 장쾌한 광경에, 원쑤들의 본거지들을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하고 질풍노도같이 점령할 일당백불사조들의 만장약전 결사정신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여있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이러세서 맛보게 하자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초강경선언은 미국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불안과 울분속에 살아가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고있다.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사탄들은 벌써 조선의 전승광장을 그려보고있다.

천출명장의 령도하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드세게 제압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화선용사들에게 온 겨레와 인류가 뜨거운 경의를 보내고있다.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의 재난이 들이닥치였던 1950년 6월의 그날로부터 65년이 지난 오늘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세계《최강》을 떠들던 제국주의피수를 무릎꿇게 하던 그때처럼 조선은 오늘도 미제를 호되게 답새기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있다.

자기 힘으로 지켜가는 존엄과 자주권이란 이처럼 영예로운것이며 필승의 근력으로 담보되는 포부와 미래 또한 그지없이 휘황찬란한것이다.

백두령장들의 손길아래 수십년세월 총포성없는 빈대대결전을 벌려오면서 오직 승리만을 떨쳐온 최정예군대, 상용무기에 의한 국지전이나 전면전쟁, 전자전과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타격수단들과 필승의 정신을 완비한 강군, 바로 이것이 존엄높은 백두산혁명강군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평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가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저들의 군사적위력을 뽐내는 최신예항공모함들도 한갖 육실하고 비대한 번데등불로탁에 보지 않는 담력과 배짱의 강자대오이다.

불세출의 선군령장들을 대를 이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이처럼 파도세찬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혹종의 대오로,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호되게 다스리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정의의 보루로 거연히 솟아올랐다.

병기로 싸우는것은 병법의 하등이요 지략과 담력으로 싸우는것이 병법의 상등이라는 옛 격언이 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지략과 담력, 배짱의 대결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필승의 무적강군으로 그 이름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천하제일배짱가, 희세의 군사전략가,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하신 공격형의 령장이시다. 적대세력의 악랄한 군사적위협소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담대한 배짱은 로아무도 한 미제의 기를 순식간에 꺾어놓았고 호전광들이 지난 수십년간 방대한 두뇌진을 동원하여 룰들여 작성한 북침작전계획들도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탁월한 령장밑에 약졸이 있을수 없는 법이다. 백두의 혼령앞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제의 성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기발을 걸레짝처럼 만들면서의 기개가 전군에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굳게 믿고 충직하게 발들어온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오늘의 빨찌산 김재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모시며 그이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철의 대오가 도도히 굽이쳐흐르고있다.

선군이 안아온 이 장쾌한 현실은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의 숙원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제국주의호전광들은 저들의 철단군사과학기술에 대하여 으시대고있다. 하지만 군사력대비에서 숫수 물질적, 과학기술적평가만을 우선시할수 없다. 그것은 청소한 신생공화국과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련합세력사이의 전면대결전이었던 지난 조선전쟁에서 이미 확증되였다.

전쟁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힘의 대결만이 아니다.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용성같이 뭉친 우리 천만군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수 없다.

우리 인민군대에는 무적의 용맹 떨친 자랑스러운 근위부대들이 많다. 위대한 전승사에 그 이름 전설같이 기록된 근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치렬한 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군공과 위훈으로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모든 군인들이 펄펄 나는 일당백싸움군, 백두산호랑이로, 모든 부대들이 강철의 근위부대들로 자라나고있다.

몇해전 전 피뢰국방부 장관이 퇴역장성들의 모임에서 북과 맞붙는 경우 저들이 완전패배한다고 실토하여 소동이 일어난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남조선잡지 미제침략군사령관이 피뢰특군협회장연에서 《김정은제1위원장은 자신감에 차있으며 예측하기 어렵다.》, 《북의 핵과 탄도미싸일 등 비대칭전력이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말하여 각계에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어쩔수 없는 고백이였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무슨 《응징》을 떠벌이며 허세를 부리고있지만 그것으로는 날로 커가는 공포와 불안을 가실수 없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원쑤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땅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일하에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일어나 노도처 나아가는 불패의 일심단결, 세계정복의 이 정치사상적힘에 고난속에서 다지고 또 다져진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기개, 그 어떤 강적도 단애에 쓸어버릴수 있는 무진막강한 백두산총대의 위력이 있다.

온갖 력사의 반동들의 비렬한 도전과 압살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음흉하고 횡포해지고있는 엄혹한 속에서도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조선은 끄떡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만일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65년전의 그날처럼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버리고 겨레의 세기적숙워인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조국통일을 안아오고야말것이다.

허 영 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를 1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웰남신문 《년전》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대담하게 철폐할것과 공화국을 자극하고 헐뜯는 일체 도발행위를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이 나라 신문 《웰남 뉴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싱가포르의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TV《아시아소식통로》, 캄보자신문 《파스마이 캄보자》, 인디아신문 《에이션 에이쥐》, 에질트의 사타 엘 발라드 TV방송, 우루과이 쎄. 에끼스 36라지오 쎈떼나리오방송, 뽈스까인터네트홈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브라질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조선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호소》 등의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의 전문 또는 요지를 보도하였다.

오스트리아단체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촉구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련대성위원회가 15일 오스트리아주재 남조선대사관에 항의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남조선당국이 미제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여 벌리는 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대결소동들을 걷어치울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목표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해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한것으로 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정세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피뢰들의 동족대결책동이 《인권》의 간판밑에 더한층 로골화되고있다. 얼마전 피뢰집권자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기구인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된것과 관련하여 《인권의 실질적개선》을 위한 《구심점》이니, 《중요한 역할》이니 뭐니 하는 고약한 나발을 불어댔다. 이보다 앞서 피뢰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유엔 《북인권사무소》 개소식이라는데서 《력사적인 리정표가 되는 날》이라느니,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기염을 토하였다. 피뢰통일부 장관 홍용표 역시 유엔 《북인권사무소》 개설을 놓고 《기대》니, 《필요한 지원과 협력》이니 하는따위의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반공화국모략과 동족대결에 미쳐버린 얼간망둥이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피뢰집권자와 그 수하졸개들이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를 놓고 저지마다 환성을 지르며 악작질을 해댄것은 골수에 《제제통일》 총제가 박 들어찬자들의 분별없는 망동이다.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자체가 존엄높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면서 《인권》모략으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순한 모략기구이라는것은 이미 록로된 사실이다.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불법성과 도발적성격으로 하여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이 반공화국모략기구를 자국에 설치하는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피뢰들만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남조선에 서슴없이 끌어들이였다. 해마다 국제무대에서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를 모함하고 압살하기 위한 《북인권결의안》 조작에 열을 올리는것으로 성차지 않아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오물단지를 서울의 한복판에 들여앉힌것이다. 이로써 집권초기부터 《북인권》 문제를 대결정책실현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내세우고 북대대결에 광분해온 현 피뢰집권세력은 남조선을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국제적거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직접 겨냥한 특대형도발로서 남조선피뢰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남조선설치가 대화와 평화, 북남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화근덩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 누구의 《인권개선에 기여》한다는것은 도대체 무슨 도깨비같은 수작인가. 나라와 민족, 부모처자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추물들이 오물처럼 쏟아낸 모략자료들을 긁어모아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기운을 고취하는것이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목적일진대 《인권개선》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망동이다. 이 모략소굴에서 우리 공화국을 마구 헐뜯는 터무니없는 자료들을 눈덩이처럼 불구어 여론화하며 북남관계파국을 부채질할판인데 그런것을 놓고 무슨 《구심점》이니, 《력사적리정표》니, 《기대》니 하고 떠벌인 피뢰패당의 추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피뢰들은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놀음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의 한사코 대결하면서 법죄적인 《제제통일》 야망을 실현하는데 피를 물고 날뛰는 저들의 흉악한 반민족적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다. 자나깨나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려고 이를 갈고있는자들이 그 무슨 《대화》와 《반대개선》에 대해 떠벌이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피뢰패당이 운운하는 《대화》타령은 완전한 허위이고 기만이다.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등지를 틀게 됨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되였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에 날로 기승을 부리는 피뢰역적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다. 피뢰집권세력은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저들의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최 철 순

추악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북남관계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박근혜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근혜패당이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악락하게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97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고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지난 26일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강한 압박》에 나서겠다고 줴쳐대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소동에 가담해오던데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조치라는것을 내드는 도발망동을 부리였다.

더우기 우리가 공화국정부성명으로 북남관계개선의지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은 매일과 같이 우리의 《핵위협》과 《인권문제》를 떠벌이면서 모략소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남조선설치가 대화와 평화, 북남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화근덩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 누구의 《인권개선에 기여》한다는것은 도대체 무슨 도깨비같은 수작인가. 나라와 민족, 부모처자까지 버리고 달아난 인간추물들이 오물처럼 쏟아낸 모략자료들을 긁어모아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기운을 고취하는것이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목적일진대 《인권개선》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망동이다. 이 모략소굴에서 우리 공화국을 마구 헐뜯는 터무니없는 자료들을 눈덩이처럼 불구어 여론화하며 북남관계파국을 부채질할판인데 그런것을 놓고 무슨 《구심점》이니, 《력사적리정표》니, 《기대》니 하고 떠벌인 피뢰패당의 추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피뢰들은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놀음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의 한사코 대결하면서 법죄적인 《제제통일》 야망을 실현하는데 피를 물고 날뛰는 저들의 흉악한 반민족적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다. 자나깨나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려고 이를 갈고있는자들이 그 무슨 《대화》와 《반대개선》에 대해 떠벌이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피뢰패당이 운운하는 《대화》타령은 완전한 허위이고 기만이다.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등지를 틀게 됨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을 맞게 되였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에 날로 기승을 부리는 피뢰역적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다. 피뢰집권세력은 도발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저들의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최 철 순

일본의 침략범죄를 덮어주는 굴욕협정 폐기하라

남조선인터네트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량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의 과거침략범죄를 덮어주는 굴욕협정을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65년 박정희《정권》이 체결한 남조선일본《협정》은 일본의 범죄를 덮어준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협정》을 명분으로 삼고 일본정부가 성노예범죄, 강제징용 등 일제의 만행을 부인하며 문제의 해결을 회피해왔고 또한 이를 구실로 일본의 력사외곡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법적책임을 외면하고 군국주의부활과 전쟁의 길로 가고있는 일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과거침략과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협정》을 폐기해야 할것이라고 단체들은 요구하였다.

남조선집권자는 박정희가 맺은 굴욕협정이 일본정부에 법죄청산을 외면할 구실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단체들은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경제장성전망

무바에서 상반년에 국내총생산이 4%이상 장성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사랑공업과 제조업, 건설, 무역부문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22일 이 나라 신문 《그란마》가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캄보쟈, 라오스, 만마, 웰남이 22일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할데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 란자니아와 잠비아는 도로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두 나라사이에 륙로를 통한 화물수송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다 한다.

농업발전조치

브라질정부가 22일 새로운 농업발전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2015년-2016년 농사제철에 소규모농장들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액이 그전 농사제철에 비해 20%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나라의 알곡생산을 늘이고 농촌주민들의 수익을 높여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웰남에서 벼가을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떠들 체면이 있는가

미당국자들은 입만 벌리면 핵무기전파가 세계를 위협에 빠트린다느니,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막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부산스레 놀아대고있다. 그런가하면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찍어가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때문에 핵군비경쟁이 야기되고 핵무기전파방지체계가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되여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리고는 마치도 저들이 핵무기전파방지에서 세계적인 《모범》인것처럼 보사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은 저들이 핵무기전파방지 및 군축분야에서 협정과 의무를 준수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야말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사실 세계적인 핵군비경쟁, 핵무기전파에 대해 론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체결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고 파괴력이 철천 더 큰 현대화된 핵무기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약상 핵군축의무를 걸머진 미국이 그에 배치되게 행동해온데 있다.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기둥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방대한 자금을 랑진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개발, 생산하고 그 현대화를 다그쳐왔다. 미국은 핵무기를 세계 여러 지역에 배비해놓고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 이로 하여 세계에는 핵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세계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한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들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 넘겨줄수 없으며 또 핵무기제조기술을 남에게 이전할수 없다고 되여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이번에 미국무성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 로씨야는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공동핵계획을 작성하고 핵무기사용훈련을 벌리고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행위를 비난하였다.

이것은 응당한것이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계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하여왔다.

오늘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술한 플루토니움을 가지고있는것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것도 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 그것을 비호하고 묵인, 협력한데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만 놓고보자.

1956년 중동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원자탄개발에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고 1957년과 1958년에 원자물리학자들을 파견하였다. 1960년대 중엽에는 핵무기의 기본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약 100㎏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다.

더모나핵펜터에서 근무한바 있는 이스라엘 핵과학자 바누누는 1960년대말 미국대통령 닉슨과 그의 측근보좌관 키신저가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계획에 공식동의한것, 이스라엘에 대형콤퓨터와 각종 핵시설들을 제공한것을 폭로하였다. 이스라엘은 순수 미국의 뒤받침의 덕으로 1969년에 핵무기개발에 성공할수 있었다. 그후에도 미국은 1980년대에 1500개의 핵무기생산용설비를 이스라엘에 비공개로 판매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이스라엘의 핵무장화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막아줬것이라는 당보까지 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미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이 25만US$의 돈을 받고 추종국가들에 핵기술을 이전한 사실이 폭로된것, 미국이 대만에 핵탄두용기폭장치를 납입한 사실이 드러난것도 그 일부이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미국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무용지물로 만든 주범이다. 력사적으로 미국이 핵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핵무기전파로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왔다는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다.

오죽하면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가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와해의 주범》이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붕괴위기에 처한데 대한 주요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판하였겠는가.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문제를 엄중시하며 세계를 돌아치는것을 보면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그것은 핵군비경쟁과 핵무기전파의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워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다.

묻건대 파연 미국에 핵군비경쟁통제와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떠들 체면이 있는가. 미국은 입이 얼게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 미국은 주체년게 그 누구의 핵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세계를 오늘과 같이 만들어놓은데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제 할바나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리 학 남

미국 로씨야의 주변나라들에 중무기들을 배비하려고 획책

미국이 로씨야의 주변나라들에 중무기들을 배비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최근 미국방장관은 중무기들이 벌가리아와 에스또니야, 라트비야, 리트비야, 뽈스까, 로므니아에 배비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 나라들의 령토에 배비하려는 무기들중에는 250대의 땅크와 《브레들리》장갑차, 자행곡사포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로씨야국방성의 한 관리는 자기 나라와의 국경연선에 위치한 나라들에로의 무기배비는 랭전이래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행위로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의 이와 같은 도발적인 책동은 로씨야의 강한 반발과 대응을 초래하게 될것이며 그로 하여 지역정세는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51100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

KCNA Watch / The Rodong Sinmun Scanned Copy 2015-06-30 Page 6/6